

순서

TH6 동방홍마향

하쿠레이 레이무

키리사메 마리사

루미아

치르노

홍 메이린

파츰리 나우릿지

이자요이 사쿠야

레밀리아 스킨렛

플랑드르 스킨렛

TH7 동방요요몽

하쿠레이 레이무

키리사메 마리사

이자요이 사쿠야

치르노

레티 화이트락

첸

앨리스 마가트로이드

릴리 화이트

소령 세 자매

콘파쿠 요우무

사이교우지 유유코

첸(엑스트라 증보스로)

야쿠모 란

야쿠모 유카리

TH7.5 동방취몽상

하쿠레이 레이무

키리사메 마리사

이자요이 사쿠야

콘파쿠 요우무

파츰리 나우릿지

앨리스 마가트로이드

레밀리아 스킨렛

사이교우지 유유코

야쿠모 유카리

이부키 스이카

TH8 동방영야초

하쿠레이 레이무

키리사메 마리사

이자요이 사쿠야

콘파쿠 요우무

엘리스 마가트로이드

레밀리아 스칼렛

사이교우지 유유코

야쿠모 유카리

리글 나이트버그

미스티아 로렐라이

카미시라사와 케이네

하쿠레이 레이무/키리사메 마리사(4면 보스)

이나바 테위

레이센 우돈게인 이나바

야고코로 에이린

호라이산 카구야

후지와라노 모코우

TH9 동방화영총

하쿠레이 레이무

키리사메 마리사

이자요이 사쿠야

콘파쿠 요우무

레이센 우돈게인 이나바

치르노

리리카 프리즘리버

메를란 프리즘리버

르나서 프리즘리버

미스티아 로렐라이

이나바 테위

샤메이마루 아야

메디슨 멜랑콜리

카자미 유카

오노즈카 코마치

시키에이키 야마자나두

TH10 동방풍신록

[하쿠레이 레이무](#)
[키리사메 마리사](#)
[야키 시즈하](#)
[야키 미노리코](#)
[카기야마 히나](#)
[카와시로 니토리](#)
[이누바시리 모미지](#)
[샤메이마루 아야](#)
[코치야 사나에](#)
[야사카 카나코](#)
[모리야 스와코](#)

TH10.5 동방비상천

[샤메이마루 아야](#)
[레이센 우둔게인 이나바](#)
[오노즈카 코마치](#)
[나가에 이쿠](#)
[히나나위 텐시](#)

TH11 동방지령전

[하쿠레이 레이무](#)
[키리사메 마리사](#)
[야쿠모 유카리](#)
[이부키 스이카](#)
[샤메이마루 아야](#)
[앨리스 마가트로이드](#)
[파츰리 나우릿지](#)
[카와시로 니토리](#)
[키스메](#)
[쿠로다니 야마메](#)
[미즈하시 파르시](#)
[호시구마 유키](#)
[코메이지 사토리](#)
[카엔보 린](#)
[레이우지 우츠호](#)
[코메이지 코이시](#)
[야사카 카나코&모리야 스와코](#)

<홍마향 캐릭터 설정>

○낙원의 무녀

하쿠레이 레이무

능력 : 하늘을 나는 정도의 능력, 영적인 기운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주인공입니다.

시간적인 흐름으로는 전작(동방괴기담)에서 크게 지나지 않았고, 연령도 변화 없습니다.

의미도 없이 무녀씨입니다. 그것보다 동방은 무녀씨 STG이니까 무녀씨입니다. 본말전도의 기
미로군요.

이번 회의 의상은 무녀씨다운 화사함도 없고, 지나치게 심플한데다 무녀씨같지 않습니다. 정
말로 무녀씨일까요?

그야말로 「거기 있는 흥백」이라는 느낌입니다.

[-처음으로](#)

○기묘한 마법사

키리사메 마리사

능력 : 마법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이쪽도 주인공입니다. 이 두 명은 동방 시리즈의 주인공입니다.

마리사는, 성격이 비뚤어져 있습니다만, 진짜로도 성격 나쁩니다.
인간일 터인데 인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인 것인지 수상합니다
만, 사실은 인간입니다.

이번 회의 에이프런 같은 것을 입고 와서, 마법사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졌네요.

[-처음으로](#)

○해질녘의 요괴

루미아

능력 : 어둠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1면 보스입니다. 요괴입니다.

스토리상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뭘 위해 살아있는 건지 불명입니다.

사실은 머리카락에 달려있는 리본은 고희이로, 리본은 갖고 싶지만, 루미아 본인은 인간에게 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둠을 조종하는 장면을 볼 수 없지만, 사실 루미아의 주위에는 언제나 밤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 어택 총 3종류

[-처음으로](#)

○호수 위의 얼음요정

치르노

능력 : 냉기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2면 보스입니다. 얼음 아가씨입니다.

머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릇 꼬맹이입니다. 레이무와 마리사에게 있어서 이 정도 요괴는 가볍게 다루어집니다.

장난을 좋아해서, 언제나 개구리를 순간 냉동시켰다가 물에 넣어 되살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3번에 한 번은 실패해서 개구리는 무참하게 부서져버립니다.

카드 어택 총 4종류

[-처음으로](#)

○중화소녀

홍 메이린

능력 : 기를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

3면 보스입니다. 중국인풍의 요괴입니다.

컬러풀하고 민속적인 의상입니다. 그녀는 홍마관의 문지기로, 호수 위에서 덤벼오는 침입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캐릭터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처음으로 스토리와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아가씨의 존재를 말하는 정도입니다만.

카드 어택 총 7종류

[-처음으로](#)

○지식과 그들의 소녀

파츄리 나우릿지

능력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4면 보스입니다. 아가씨의 친구로 대략 100년은 마녀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소녀입니다.

원래 병약하고 육탄전에 약하지만, 압도적으로 다채로운 마법공격으로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파츄리의 리본은 고헤이가 아니라, 마법력을 높이기 위한 약세사리입니다.

진짜 마녀로, 마법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다만 선천적인 천식 때문에 스펠을 잘 외우지 못합니다. 비타민A 부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창문이 없는 도서관이 먼지투성이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보통 생각하면 먼지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책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책 옆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100년 정도.

카드 어택 총 21종류

[-처음으로](#)

○홍마관 메이드
이자요이 사쿠야

능력 : 시간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5면 보스입니다. 메이드로, 10~20년 정도 인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능력 때문에 인간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이미 보통의 인간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한 명예욕과 지배욕 따위는 없고, 밥만 잘 먹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 홍마관에서 메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홍마관에서는 청소부 겸 메이드장을 담당하고 있고, 항상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멈추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는 등)

이 집의 주인이 그것이라서, 사실, 메이드를 하거나 애보기 역을 하거나, 이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 어택 총 9종류

[-처음으로](#)

○영원히 붉은 어린 달
레밀리아 스칼렛

능력 : 운명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최종보스입니다. 500년 정도 아가씨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에서는 맛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뱀파이어입니다. 안개를 발생시켜 환상향을 덮어버린 것도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요괴들에게 공경받고 있지만, 그 카리스마는 그녀의 인격이 아닌, 그 종족에 대한 경외입니다. 가족은 여동생이 한 명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수수께끼입니다.

그녀는 소식으로, 많은 피를 먹지 못하고 남기기 때문에, 빨린 인간은 죽지 않고 빈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늘 동족 늘리기에 실패합니다.

그런 주제에 많은 피를 흘려버려서, 양복을 새빨강게 만들기 때문에, 모두에게서 「스칼렛 데빌(붉은 악마)」로 불립니다.

체페슈의 후예라고 자칭하지만, 정말로 블러드 = 체페슈의 피를 잇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보다 잇고 있지 않습니다.

카드 어택 총 10종류

[-처음으로](#)

○악마의 여동생

플랑드르 스칼렛

능력 : 모든 물건을 파괴하는 정도의 능력

엑스트라 보스입니다. 아가씨의 여동생입니다.

흡혈귀이자 마법소녀로, 495년 정도 악마의 여동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서불안이라서, 통상은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레밀리아를 언니라고 공경하지만, 그 브레이크가 소용없는 파괴력은, 아가씨를 멀리 능가합니다. 보통은 별로 화내지 않습니다만, 항상 이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통상, 흡혈귀는 식사를 하기 위해, 인간을 죽이지 않는 정도로밖에 습격하지 못합니다만, 플랑드르는 주는 것밖에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적당히 손봐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날려버립니다.

어쩌면, 항상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인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매일 먹고 있는 것이, 보기에는 케이크가 되어 있거나 홍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말이죠.

카드 어택 총 10종류

[-처음으로](#)

<요요몽 캐릭터 설정>

○낙원의 멋진 무녀
하쿠레이 레이무

주로 하늘을 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무녀씨. 환상향의 경계에 있는 하쿠레이 신사의 무녀씨.
하쿠레이 신사 자체는, 환상향과 인간계의 양쪽에 위치한다.

그 경계가 하쿠레이 신사 경내이다. 어느 쪽에서 보아도, 사람의 마을에서 떨어진 산속에 존재하고, 그리 크지 않고, 이익도 관계도 없는 작은 신사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건 참배객은 거의 오지 않는다.

이 신사 안에는 대부분의 결계가 무효화된다. 그만큼, 환상향과 인간계의 경계, 하쿠레이 대결계의 힘은 큰 것이다.

환상향에서 유일하게, 하쿠레이의 인간만이 규율을 갖는다. 그 때문에, 레이무는 일단 제복 같은 옷을 착용한다(그 외에도 규율은 있겠지만...)

홍백의 옷을 입고, 환상향의 끝에서, 환상향의 하늘을 내려다보고, 차라도 마시는 것이 일과이다

원래, 레이무는 이상한 힘을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거나 자만하거나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이다.

[-처음으로](#)

○평범한 흑마술사
키리사메 마리사

주로 마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

환상향에 사는, 조금 평범한 마법사. 수집벽을 갖고 있다.
해마다, 수집벽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함부로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없는 키리사메 저택은, 환상향의 숲(통칭 마법의 숲) 속에 있다. 작고 아담한 건물이다.

건물 안은,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지진이라도 생기면 아이템의 눈사태에 눌러 찌그러질 것 같다.

매직 아이템은 한 장소에 모아두면, 서로 간섭해서 성질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집에는 마리사도 모르는 힘을 가진 아이템이 잠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덧붙여, 겨울에 틀어박혀서 만든 약은, 너무 커서 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량 필요.

[-처음으로](#)

○홍마관 메이드

이자요이 사쿠야

주로 시간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환상향에 있는 호수 근처에, 그 붉은 저택은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메이드이다. 급료는 없다.

이 저택에서 청소도 하고, 지시도 하고, 요리도 하고, 아가씨도 돌봐주는 등, 보통은 바쁘다.

저택은 지나치게 넓고, 거기에 단조로운 색조 때문에, 전체 모습은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헤매게 되어서 어딘가 떨어져도, 알 수 없다. 먼저 누군가에게 발견되거나 지워져도, 알 수 없다.

붉은 건물은 초록이 많은 환상향에 있어도 어째서인지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치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워져 있다.

사쿠야도, 이곳에 살고 있으면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었다. 물론, 사쿠야가 시간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얼음의 요정

치르노

1면의 중보스, 추운 곳을 아주 좋아하는 얼음의 요정.

주로 냉기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

딱히 목적이 있어서 레이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한 것뿐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치르노 쪽에서 냉기를 내기 때문에, 치르노 주변은 춥다.
물론 봄에도 춥다. 가을에도.

[-처음으로](#)

○겨울의 유실물 레티 화이트락

1면의 보스. 겨울이 되면 어디에서건 떠오르는 요괴.
주로 한기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

레티는 겨울에 한해 행복해진다. 레이무들이 이 행복한 시간을 깨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간섭을 했다.

단지, 매 해 봄이라고 하는, 레티들과 꽃가루 알레르기에는 우울한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심으로 공격한 것은 아니다.

봄이 찾아오면, 또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처음으로](#)

○홍조의 검은 고양이 첸

2면의 보스, 산의 요괴 고양이에 빙의한 식신.
주로 요술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그 정체는, 란의 식신. 즉, 첸은 요괴의 식신의 식신이다.
식신이라고 해서 보통은 고헤이 따위가 아닌, 평소에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구별은 되지 않는다.

식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평소에도 사람의 말을 하며, 보통은 날면서 돌지만, 적당히 인간을 놀라게 하는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겉모습과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겨울에는 화로 옆에서 웅크리고 있다.

요괴 고양이에 귀신을 빙의시켰기 때문에 높은 요력을 얻었지만, 첸을 사용하는 것도 식신이 기 때문에, 그 능력은 다소 낮다.

또한, 물에 닿게 되면 식이 떨어져나간다. 식에 빙의하지 않은 요괴 고양이 상태의 첸도 보통

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항상 물에 약하다.

[-처음으로](#)

○칠색의 인형사

앨리스 마가트로이드

3면의 보스, 지극히 평범한 마법사.
주로 마법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일단 만능의 마법사이며, 이렇다 할 속성의 특기나 약점은 없다. 강하게 말하면 마리사에 가깝고, 말하자면 요괴판 마리사이다.

앨리스도 수집가이며, 진짜 매직아이템을 수집하는 특성이 있다.
수집가 동지, 마리사와 마주치는 경우도 많아, 의외로 건원지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는 인형수집에 몰두해 있다.

레이무들과 싸우는 명시적인 이유는 없다. 거기에 있었으니까 마법 상대로 한 것뿐이다. 압도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은, 앨리스에게 있어서 즐거운 것도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대의 상황을 봐서, 그보다 살짝 강한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 저도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전력으로 싸워서 지면, 정말로 뒷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의 성격은 레이무와 닮았다.

[-처음으로](#)

○봄을 나르는 요정

릴리 화이트

4면의 중보스, 봄이 오면 떠오르는 요정.
주로, 봄이 온 것을 전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게임 중에서는 한마디 대사도 없고, 스펠카드도 쓰지 않는다.
자코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 위까지 상태를 보러 갔더니, 그곳인 이미 봄이 되어 있었다. 본인은, 구름 위까지 가서 겨우 봄이 온 사실을, 눈 앞에 있던 인간에게 전한 것뿐이지만, 그것은 레이무들에게는 단순한 공격으로 보였다.

[-처음으로](#)

○소령 세 자매

장녀 르나서 프리즘리버

차녀 메를란 프리즘리버

3녀 리리카 프리즘리버

4면의 보스, 소령으로 연주대. 소란스러움×3이다.

주로 손발을 쓰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는 정도의 능력×3을 가진다.

사이교우지 가에 소집되어서는 연주를 하고, 보수로 꽃구경을 약속 받았다. 세 명은 무언가 연회가 있을 때마다 불러 다녀서, 연주로 연회장을 들뜨게 한다.

다양한 유령들의 광고요원이다. 이번 회에는, 사이교우지 가에서 꽃놀이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언제나처럼 소환되었다.

르나서는 무엇을 해도 우수한 우등생 타입. 뭐든지 돌아서 하는 것을 싫어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또한 강하다. 성격은 한다면 한다면 타입이지만 어둡다.

지나치게 솔직해서 속기 쉽다.

잘 하는 악기는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을 사용한다. 보통은 솔로연주를 좋아한다.

메를란은 조금 독특한 타입. 마법의 힘은 최강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돼 있다.

성격은, 여유가 넘쳐나는 밝은 성격. 조울증 기미가 있다.

잘 하는 악기는 관악기. 특히 트럼펫을 사용한다.

리리카는 교활한 성격. 보통은 언니들을 부추겨서 자신 쪽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성격은, 컨디션이 좋고, 현명하다. 태도와 행동은 3수 앞까지 계산할 수 있다.

모든 악기를 잘 다루지만, 보통은 건반악기나 퍼커션[타악기]를 담당한다.

세 명의 탄생은 멀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옛날, 인간의 귀족, 프리즘리버 백작이라는 인간이 있었다. 백작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었고, 꽤 귀여워했다.

그러나, 어떤 불행한 사고에 의해, 네 명은 가족을 잃는다. 의지할 곳 없는 딸들은, 각자 떠났지만, 넷째 레이라만은 추억의 저택에서 떠날 수 없었다.

레이라는 최대한의 힘으로, 언니들의 모습을 한 소령(폴터가이스트)을 만들어내고, 이 저택과 소령과 함께 사라졌다.

시대는 흘러, 네 명은 아주 옛날에 죽어버렸지만, 저택은 아직 소령저택으로 환상향에 남아있

다. 소령 세 자매는, 지금도 그 저택에서 소란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다.

세 명의 연주는, 다양한 장소에서 연주되지만, 경쾌한 리듬과 클래식한 악기의 조합이, 밝은 명계의 주민에게 사랑 받는 모양이다.

또한, 연주 자체에 부가효과는 없고, 치유도 되지 않는다.

-처음으로

○반유령 정원사

콘파쿠 요우무

5면의 보스, 유령과 인간의 혼혈.

사이교우지 가의 전속 정원사 2대째 겸 아가씨의 경호역이다.

주로 검술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요우무는,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유령 10인분의 살상력을 가진 장검 「누관검」과, 인간의 망설임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백루검」을 사용, 정원을 손질한다.

선대, 콘파쿠 요우키는, 300년 정도 정원사를 역임하던 어느 날, 아직 어린 요우무에게 뒤를 잇게 하고 은거한다. 요우무의 검술은 아직 미숙하고, 성숙할 때까지는 수행의 나날을 뺄 수 없다. 스승이기도 할 터인 선대는 행방을 감추었고, 요우무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도 가르침일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이번에, 사이교우지 아가씨의 명령에 의해 사이교우 아야카시를 만개시키기 위해, 환상향의 봄을 모으고 있었다.

이곳 백옥루에는, 사이교우 아야카시 외에도 벚꽃이 많이 있지만, 매해 사이교우 아야카시만은 꽃을 피우지 않았다. 선대는 만개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벚꽃이었지만, 두 번 다시 피어날 일은 없겠지」라고,

말했던 것이다.

요우무는, 그 때는 아직 그 의미도, 사이교우지 아가씨가 명령을 내린 진정한 이유도 알지 못했다.

요우무는, (물론 아가씨의 호언장담이겠지만) 꼭 200유순에 달한다고 말해지는 사이교우지 가의 정원을 이어받았다. 이 정원에는 무서울 정도로 벚꽃이 많이 있어서, 명계의 주민의 꽃구경 명소가 되어 있다. 봄이 되면, 요우무는 뒷처리로 매우 바빠진다.

올해도 예외없이, 근년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근사한 꽃 모양에 유령들도 몹시 감격했다. 누구나 「유령 해서 좋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모습에, 반은 인간인 요우무는 「반유령 해서 절반 좋았다」고 절반 동조했다.

남은 것은, 사이교우 아야카시의 개화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처음으로

○저승누각의 망령소녀

사이교우지 유유코

라스트 보스, 전통 있는 사이교우지 가의 아가씨. 지금은 망령공주이다.

주로 죽음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그 옛날, 환상향에는 한 명의 가성이 있었다. 가성은 자연을 사랑하여 죽을 때까지 여행하며 돌아다녔다고 한다.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스스로 바라던 대로 가장 아름다운 벚나무 밑에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그 이래로 그 벚나무는 점점 아름답게 피어나고, 많은 사람을 매료하고, 많은 사람이 영원의 잠에 들었다. 그런 죽음의 매력을 가진 벚꽃은 언제부터인가 요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때부터 약 천 년이 흘렀다.

사이교우지 가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는 요괴 벚꽃 「사이교우 아야카시」가 있다. 이 벚꽃은, 유유코가 이 곳에 왔을 때부터, 어떤 봄이 되어도, 개화하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유유코는 항상 그랬듯 독서를 즐기고 있다가, 서가에서 낡은 기록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어느 시대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술로,

「후지미의 딸, 사이교우 아야카시 만개의 시기, 유명한 경계를 나누는(죽는다는 뜻) 그 혼, 백옥루 안에서 쉬게 되도록, 사이교우 아야카시의 꽃을 봉인해 이것을 가지고 결계로 한다. 바라자면, 두 번 다시 괴로움을 맛보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전생하는 것을 잊어· · ·」

라고 적어져 있었다.

유유코는, 사이교우 아야카시의 봉인을 풀어, 꽃을 만개시키는 것이 가능하면, 누군가가 부활한다고 생각, 흥미본위로 봄을 모으기로 하였다.

본래, 명계에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영체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명계의 사이교우 아야카시

의 밑에 잠들어 있는 망해에 의문과 흥미를 가지고, 그래서 그 봉인을 풀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본래, 사람과 요괴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사자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원사 요우무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해 사이교우 아야카시 이외의 벚꽃은 만개했고, 사이교우 아야카시도 꽃이 피어나려고 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원래 좁은 환상향의 봄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거기에, 약간의 봄을 가지고 인간이 방문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은 봄을 손에 넣기 위해 싸우게 된다.

그러나 유유코는, 보통의 생활에 지나치게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일까, 아니면, 기록이 너무 옛 문헌이었기 때문인가, 글 속에 있던 죽은 딸이라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최후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원래, 유유코는 사령을 조종하는 정도의 인간이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죽음으로 이끄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되어, 간단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멀리하여 자진했다.

망령이 된 후에는, 생전의 일을 완전히 잊어, 그것은 이미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즐기게 되었기 때문이니까 성가시지도 않는다.

유유코가 전생도 소멸도 하지 않고 벚꽃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이교우 아야카시의 봉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걸계가 풀려버리면, 멈춰있던 시간이 멈출 곳 없이 흘러버리게 되고, 그것은, 다시 유유코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부활시키는 것도, 백옥루에 있는 자신의 소멸로 이어지기 위해, 부활은 직전에서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역시 유유코는 죽음을 조종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그 사실을 알던 선대 콘파쿠 요우키는, 절반의 인간이라는 성질상 느긋하게 나이를 먹고, 요우무에게 유유코의 일을 전해줄 생각으로 사라졌다.

언제까지나 유유코는, 명계의 공주님으로, 멸족한 사이교우지 가의 아가씨로 지내는 것이다.

유유코가 사이교우 아야카시의 만개를 볼 일은, 절대로 없다.

[-처음으로](#)

○틈새요괴의 식신의 식신
첸

엑스트라 스테이지의 중보스.

전의 상처가 완치되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싸우게 될 줄이야.

이번에는 주인 곁에서, 일단 강한 요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은, 눈 앞의 인간에게 통용될 것인가?

[-처음으로](#)

○틈새요괴의 식신
야쿠모 란

엑스트라 보스. 유카리의 식신. 유카리가 자고 있을 때 대신 활동하고 있다.

주로 식신을 다루는 정도의 힘을 가진다.

유카리는 1일 12시간 수면으로, 저녁부터 한밤중에 걸쳐서밖에 활동하지 않는다.

그것도 겨울에는 동면한다. 그 때문에, 자고 있는 동안에는 이 식신에게 일하게 한다.

란은, 꽤 오랫동안 식신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곳 저곳 널려있는 요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 때문에, 란은 스스로 식을 주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미 자신이 식신이라는 것도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매 해,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명계의 벚꽃 명소에 갔다.

올해는 기분 좋은 벚꽃이 있어서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이 섞여 들어왔다. 재미있어 보여서, 조금 상태를 보기로 했다.

후에, 자신의 식신인 첸이 이 인간에게 당한 것을 듣고, 약간의 보복을 해 주자고 생각했다.

실태는 요괴 여우. 첸처럼, 겉모습은 보통과 다르지 않지만, 성격은 둥글다. 잘 보지 않아도 꼬리가 있다.

사실은 실체화 할 때부터, 상당한 요력을 가진다.

그럭저럭 지낼 때에도, 자신의 주인님은 계속 자고 있다.

[-처음으로](#)

○행방불명의 주범

야쿠모 유카리

봄이 되면 눈을 뜨는 틈새요괴.

주로, 온갖 경계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유유코와는 오랜 친구 사이지만, 딱히 유령인 것은 아니다. 환상향 안에서도 가장 변경에 남몰래 사는 요괴이다. 여기에서, 하쿠레이 대결계를 지켜보며 지내고 있다.

가끔 환상향에 인간이 섞여오는 것도, 유카리가 경계에 요동을 만들거나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의 은폐[행방불명]라고 부르는 현상도, 결국 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요괴소녀가 한 것이라고 알아버리면, 그 어떤 신비성도 잃어버릴 것이다.

유카리는 보통 쓸데없이 움직이는 일은 없고, 대신 식신인 란을 조종해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에는 란은 내버려두고,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모른다.

그 식신인 란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것을 듣고, 조금 놀랐지만 두 번째로 자버렸다.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제야, 주변이 온통 이미 봄이 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실은 10일 정도 전부터 봄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그 사실을 잠드는 도중 잊어버려, 일어날 때마다 놀란 것이었다.

란의 수복이 완료될 때까지, 안심하고 잘 수는 없는걸~, 하고 생각하면서 세 번째로 자버렸다.

그럴 때, 이번 회의 소동으로 엮어진 유명한 경계를 수복해 달라고 유유코에게 의뢰를 받는다. 자신이 약하게 해 놓고는 수복이고 뭐고 없는걸, 하고 생각하면서 졸린 눈을 뜨고 출발했다.

오랜만에 명계를 방문한 유카리는, 묘하게 소란스러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사이교우지는 훨씬 조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지만, 유유코의 흥미가 변한 것이라고 멋대로 납득했다.

도중에 정원사 요우무와 만나서, 자세한 사정을 들었다. 요우무의 이야기대로라면 아무래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지만, 유카리는 어떻게 들어도 자업자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모두, 그 요괴 벚꽃에 미쳐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 벚꽃은 인간의 정기를 지나치게 빨아들였

다. 항상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카리는 유유코가 살아있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실은, 유유코가 요괴 벚꽃에 봉인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유유코의 망해가 요괴 벚꽃을 봉인시키고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체몽상 캐릭터 설정>

○낙원의 멋진 무녀

하쿠레이 레이무

종족 : 인간

사는 곳 : 하쿠레이 신사

능력 : 하늘을 나는 정도의 능력

언제나 그렇듯 하쿠레이 신사의 무녀씨.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장소의 규칙대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무녀씨다운 행동이라고 말하면, 초록색 장소에서 차를 마시면서 보내는 정도.

이상하게 단순한 사고의 소유자로, 화낼 때는 화내고, 웃을 때는 웃는다. 뒷생각이 없는 성격은, 인간 요괴 묻지 않고 사람을 끌기 쉽다. 그 때문에 신사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체술로 해도 요술로 해도, 수행은 부족하지만(것보다 거의 하지 않는다), 여유 있는 천성의 센스로 커버하고 있어서, 꽤나 강하다. 그것은 이미,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 워프하거나, 호밍하거나 하지만, 본인은 일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한 것뿐. 치사한 무녀씨.

[-처음으로](#)

○평범한 흑마술사

키리사메 마리사

종족 : 인간

사는 곳 : 마법의 숲에 있는 키리사메 저택

능력 : 마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

평범한 마법사씨. 사람이 함부로 찾지 않는 마법의 숲에 있는 집에 틀어박혀서, 매일 마법의 연구를 계속한다.

성격은, 지기 싫어하고 성질 나쁜 점도 있지만, 근본은 솔직하다. 어디에 가도 폐를 끼치지
만, 실제로 폐 끼치는 행동도 많다.

숲에 틀어박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 중에 방해가 들어
오지 않았으면 하고, 사람과 만나고 싶을 때는 자신 쪽에서 나가면 된다.

거는 전용의 휴대전화 비슷한 것도 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양하게 방해를 한다. 어디
에 가도.

스피드와 파워는 있지만, 체술은 그리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은 빠르지만 어쩌면 좋을
지 기술은 무겁다. 파워는 마법을 휘감는 것에 필요이상으로 커버하고 있다.

[-처음으로](#)

○홍마관 메이드
이자요이 사쿠야

종족 : 인간
사는 곳 : 홍마관
능력 : 시간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홍마관에 살면서 일하는 메이드씨. 취사, 청소, 세탁, 애 돌보기에 나이프역이지만, 메이드가
할 만한 것은 모두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메이드장.

성격은, 산뜻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은 어딘가 부족한 모습도 보인다.
일이 완벽하고 빠른 것은, 시간을 멈추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체술도 특기이다. 오히려 탄막 같은 수상한 술법보다 잘 하는 편.
탄막에도 던지는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거기에 도구가 필요하지 않는 마술[마
법 아님]을 좋아해서, 전투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점이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느
껴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처음으로](#)

○생명의 이도류
콘파쿠 요우무

종족 : 인간과 유령의 혼혈
사는 곳 : 명계에 있는 백옥루

능력 : 검술을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

백옥루에 살면서 일하는 정원사. 절반 인간이고 절반 유령, 절반 살아있고 절반 죽어있다, 절반 실재해 있고 절반 환상이라고 하는 반 사람 분. 그러나 검은 두 자루.

성격은 어떤 일에서도 열심이지만, 그게 보상받는 일은 적다. 수상한 사람이 많은 환상향에 서는, 너무나 솔직해서 놀림 받기 좋은 성격이기도 하다.

체술은 반 사람 분이면서도 상당히 뛰어나다. 요술도 반 사람 분이면서도 뛰어나고, 사실 밸런스가 잡혀있다. 요괴가 제련했다고 하는 누관검과 백루검을 다루고, 적이건 유령이건 탄막이건 인간의 망설임이건 베는 것이 가능하다. 베지 못하는 것은 조금밖에 없다.

누관검(긴 쪽)은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유령 10인 분의 살상력을 가진다. 백루검은 인간의 망설임을 베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물론, 양쪽 다 살아 있는 인간을 베는 것이 가능하다.

[-처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대도서관

파츰리 나우릿지

종족 : 마녀

사는 곳 : 홍마관

능력 : 마법(주로 정령마법)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

홍마관에 사는 마녀. 이 집의 주인과는 달리 햇빛에 약하지 않지만 함부로 밖에 나가지 않는다. 생활하고 있는 도서관은 빛이 닿지 않는 곳이다. 이것은 책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공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

성격은 적극적인 편은 아니고, 항상 자기 길을 간다. 단지, 호기심은 높고 지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몰입한다. 모두 책에 의지하는 것이지만 오류도 많다.

재주는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무력한데다 체술 소질도 전혀 없다. 직접 때리거나 차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강력하고 다채로운 마법을 습득했다. 때리는 정도라면 마법을 사용하는 쪽이 편하다. 요일에 맞추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숨겨진 취미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처음으로](#)

○칠색의 인형사

앨리스 마가트로이드

종족 : 마법사

사는 곳 : 마법의 숲에 있는 그 나뭇대로의 집(고유 명칭은 없다)

능력 : 마법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

순수한 마법사씨. 겉모습은 인간과 거의 같지만, 인간은 아니다. 소위, 인간 요괴와 같은 종류이다.

그녀의 집은 좁지만 대량의 인형이 놓여 있다. 그 기분 나쁜 점은, 가끔 헤매는 사람을 공포로 움츠리게 한다. 기분 나쁜 숲 속에 있고, 너무나 이질적인 인형의 집. 그것은, 숲이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하다.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마법에 집착하기 쉽다. 강한 체를 해 보이지만, 실은 겁쟁이인 면도 있다.

체술은 극히 평범하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마법을 사용하는 것도 사람과 비슷하다. 재주는 상당히 좋아서, 대량의 인형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재주 좋음은 환상향에서도 일류이다.

[-처음으로](#)

○붉은 악마

레밀리아 스칼렛

종족 : 흡혈귀

사는 곳 : 홍마관

능력 : 운명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홍마관의 주인. 어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500년 이상 살아온 흡혈귀. 햇빛에 약하고, 낮에 밖에 나갈 때는 양산이 필요하다.

성격은 어린애 같고, 명령 하나로 뭐든지 해 주는 메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어리광을 부린다. 힘은 지나치게 강력해서, 주변에는 좋은 민폐도 끼친다.

눈에도 포착되지 않는 스피드, 바위도 부수는 파워, 생각대로 악마를 조종하는 마법력과 반칙적인 신체능력을 가졌고, 손끝의 테크닉을 무시한다.

햇빛에 약해도, 육체도 이상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 박쥐 한 마리 분량이라도 남아있으면,

언제나 재생할 수 있다. 적으로 대하면 무섭지만, 별로 아군으로도 하고 싶지 않은 상대이다.

[-처음으로](#)

○천의무봉의 망령

사이교우지 유유코

종족 : 망령

사는 곳 : 명계에 있는 백옥루

능력 : 죽음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저 세상에서 성불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사는 망령소녀. 언제 죽었는지, 너무 오래 되어서 생각나지 않는다. 성불할 수 없는 것은 지난 세계에 미련이 있기 때문일까.

성격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상당히 곤란한 행동을 한다. 진지한 성격의 요우무는, 이 아가씨에게 휘둘릴 뿐이다. 하지만 실은 환상향 밖의 이 나라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이다.

생전에도 죽은 후에도 체술에 소질은 거의 없고, 망령답게 등실등실 떠 있다.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나긋나긋하게 움직이고, 곡선이 많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이 동작이 잡히지 않는 공격은, 정신차려보면 어느 순간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처음으로](#)

○환상의 경계

야쿠모 유카리

종족 : 요괴

사는 곳 : 불명

능력 : 경계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의 요괴. 문자 그대로 요괴답고 수상하다. 환상향의 경계에 있는 저택에 산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째서인지 밖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안다. 대단히 수상쩍다.

성격은 이해불능이지만, 결코 좋은 쪽은 아니라고 하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점이다. 가능하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된다. 보통은 레이무 정도밖에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는다.

체술도, 인간의 기준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 빠르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다.

강한 것인지 약한 것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카리의 행동은, 결국 이겼다고 해도 열받는다.

그러면서도, 그녀만큼이나 환상향에 정면으로 접하고, 환상향을 사랑하는 자도 없다.

-처음으로

○모이는 꿈, 환상, 그리고 백귀야행
이부키 스이카

종족 : 오니

사는 곳 : 오니가 산다고 하는 나라(현재는 환상향의 어딘가에 있다)

능력 : 소[흠어짐]와 밀[몽침]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는 없다고 하는 오니. 그녀는 그 오니라고 말한다.

오니는 일반적으로 활달하고 술을 좋아한다. 물론 연회도 매우 좋아하고, 인간과의 진검승부도 매우 좋아하고, 승부라면 격투건 마시기 대결이건 무엇이건 한다. 마음에 든 인간을 발견하면, 인간이 준비한 룰로 싸우려고 한다. 그리고, 승부에 이기면 그 인간을 잡아간다.

오니는 즐겁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즐기는 방법을 몰랐다. 어떤 것도 인간이 감당할 레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인간도 오니에게 이길 정도로 강해지면, 서로 즐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인간은, 비겁한 책략으로 오니를 일망 타진하려고 했다.

오니가 인간을 잡아가는 것은, 인간의 공포심의 상징이 되고, 그것이 오니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공포심은 필요한 것이지만.....그것을, 인간은 모두 자신들의 형편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부숴버렸다.

오니는, 반복되는 비겁한 오니의 난획에 의해, 그런 인간을 영원히 내버려두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옮겨갔다, 고 전해져 있다. 이미, 오니의 모습을 볼 일은 없었다.

그녀는 그런 오니라고 말한다.

확실히 활발하고 술을 좋아한다, 3일마다 열리는 연회를 열게 할 정도로 연회도 좋아한다.

이번에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게임 중에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오니와 인간의 신뢰관계를 되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게 실패했냐고 말하면.....? 그것도 게임 중에서 최후에 말한 대로이다.

성격은 위에서 말한 대로 활발하고 술을 좋아한다. 순진하고 이상하게 단순하다. 대체로 함께 있으면 장소가 밝아지지만, 둘만 오래 있으면 점점 조용해진다. 그것보다 이상하게 어린애 같다.

능력은, 소와 밀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것도, 모았다가 흩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연회 같은 것도 여는 것도 가능하고, 자신을 흩어서 안개 같은 상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기의 안개는 이상하게 열려져 있는 그녀인 것이다. 새로운 힘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것도 모았다가 흩어버리는 정도이지만, 모으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특수한 창조능력에 가깝다. 과연 잃어버린 오니의 힘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신체능력은 이상할 정도로 뛰어나고, 힘, 스피드, 요력, 모두에 걸쳐 인간을 아득히 웃돈다. 유일한 약점은, 스이카의 리치가 없음이지만, 그녀는 다양한 수단으로 그것을 보충한다. 인간과의 대결이 매우 좋은 것뿐으로, 술에 취해 있어도 터무니없이 강하다. 그것보다 취할 수록 강하다. 그것보다 취해있지 않을 때가 거의 없다.

[-처음으로](#)

<영야초 캐릭터 설정>

○낙원의 멋진 무녀

하쿠레이 레이무

Reimu Hakurei

종족 : 인간

능력 : 주로 하늘을 나는 정도의 능력

매번 익숙해지게 되는 무녀씨. 환상향의 경계에 있는 하쿠레이 신사의 무녀씨.

하쿠레이 신사 자체는, 환상향과 인간계의 양쪽에 위치한다.

누구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보는 성격은, 요괴처럼 평소 두려움 받는 존재에게서도 사랑받는다. 역으로 말하자면, 누구에 대해서도 동료로 보지 않는다. 주변에 많은 인간과 요괴가 있거나, 함께 행동을 해도, 항상 자신 혼자이다. 실은 차가운 인간인 것인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평범한 흑마술사

키리사메 마리사

Marisa Kirisame

종족 : 인간

능력 : 마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 사는, 조금 평범한 마법사. 수집벽이 있다.

인간이 거의 찾아오는 일이 없는 마법의 숲에 살고, 마법의 연구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

마법사라고 하는 인도어(방구석 폐인)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나가는 일이 많다. 마리사는 연구에 몰두할 때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란스러운 것을 아주 좋아한다. 숲은 사람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좋은 것이다. 결코 연구도중의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서 숨어있는 것은 아니다(마리사 말하기를)

[-처음으로](#)

○홍마관 메이드

이자요이 사쿠야

Sakuya Izayoi

종족 : 인간

능력 : 시간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 있는 호수 근처에, 그 붉은 저택은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메이드이다.

메이드를 하고 있으면, 이런 깊숙한 산속이라도 의식주에 구애 받을 일 없이 쾌적하다. 그녀는 인간이지만, 악마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요괴에게도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의 인간들은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만나주고, 무엇보다 먹고 자는 곳과 사는 곳이 곤란하지 않다. 이 정도로 쾌적한 생활은 달리 생각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반인반령

콘파쿠 요우무

Youmu Konpaku

종족 : 인간과 유령의 혼혈
능력 : 검술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

명계에 있는 백옥루의 정원사.
원래는 아가씨의 검술 사범이다.

살아있는 것인가 죽어있는 것인가, 인간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본인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간보다 수명은 길지만, 죽음은 찾아오는 모양으로, 역시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콘파쿠의 검은 영체 상대로 하는 검이지만, 살아있는 자도 벨 수 있다.

[-처음으로](#)

○칠색의 인형사
앨리스 마가트로이드
Alice Margatroid

종족 : 마법사
능력 : 마법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

마법의 숲에 사는 마법사.
마리사의 마법사(직업)과 달리, 종족이 마법사이다.

마법사라고 하는 이미지대로 인도어 파이다. 기본적으로는 혼자 있는 일이 많다. 마법의 숲에는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쾌적하다. 단지, 숲은 불쾌할 정도로 습도가 높아서, 인형의 손질을 하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린다. 그 때문에, 인형 손질을 자동으로 해 주는 인형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다.

[-처음으로](#)

○붉은 악마
레밀리아 스칼렛
Remilia Scarlet

종족 : 흡혈귀
능력 : 운명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 있는 호수 근처에, 그 붉은 저택은 있다.
그곳을 지배하는 아가씨이다.

500년 정도 살아온 주제에, 어리다. 흡혈귀를 포함해서 악마는, 인간에게서도 요괴에게서도 무조건으로 미움 받는 종족이다. 왜냐면 그녀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인 자들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레밀리아도 그 뻔한 부류에 속하고, 상당히 제멋대로이다. B형의 피가 제일 맛있다.

[-처음으로](#)

○화서의 망령

사이교우지 유유코

Yuyuko Saigyouzi

종족 : 망령

능력 : 죽음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명계에 사는, 망령 아가씨.

영체답게, 조금 땅에 발이 닿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폐이다.

그러나 다리는 있다.

망령은 죽은 사람의 영이다. 유유코는 특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 좋을 대로 굴지만, 그 죽음의 능력은 자기 좋을 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 요괴에게 퇴치될 일도 없다. 하지만, 마음 저편에 유유코를 향한 공포심을 안고 있는 자도 적지 않다.

[-처음으로](#)

○경계에 잠기는 요괴

야쿠모 유카리

Yukari Yakumo

종족 : 요괴

능력 : 경계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의 경계 어딘가에 사는 요괴.

경계 자체는 보통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인지는 불명.

적어도 같은 경계상에 있는 신사는 아니다.

환상향에 사는 요괴 중에서는, 상당히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서 힘도 강대하다. 지금 와서는 환상향 그 자체의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는 요괴 중에서도 그 수가 적다. 그녀는 수상쩍게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다움이 적고,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능력은, 곤란해지면 간단히 환상향을 지우는 것도 가능한 위험한 요괴이다.

[-처음으로](#)

○1면 보스 어둠에서 준동하는 빛의 벌레
리글 나이트버그
Wriggle Nightbug

종족 : 요괴 벌레
능력 : 벌레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1면 보스이다.

그녀의 주위에는 많은 벌레들이 모인다. 반딧불은 대량으로 모여도 깜빡이는 타이밍이 잘 맞지만, 그것은 사실 그녀 같은 명령중추가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기껏 해 봐야 벌레, 라고 생각하면 대량의 벌레에게 공격 당해, 잠시도 지탱할 수 없다. 특히 그녀를 화나게 해서 진심으로 하게 되면, 대량의 독충을 소환하여, 인간은 고열을 내면서 죽는다.

추운 것과 살충제에 약하다.

[-처음으로](#)

○2면 보스 밤참새 요괴
미스티아 로렐라이
Mystia Lorelei

종족 : 밤참새
능력 : 노래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정도의 능력

2면 보스.

사람을 밤소경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인간은 그녀를 밤참새라고 부르지만, 별로 생김새를 보는 일은 없다. 왜냐면 밤에만 나오는데다, 인간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봐 버리면, 참새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노래는 인간의 판단을 둔하게 하고, 어둠에 초대받은 인간은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밤, 길을 잃는 원인의 하나이다.

또, 인간을 밤소경(어두운 곳에서는 시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병)으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일도 있다.

[-처음으로](#)

○3면 보스 역사를 먹는 자

카미시라사와 케이네

Keine Kamishirasawa

종족 : 상백택[달리 읽으면 카미시라사와; 케이네의 성]

능력 : 역사를 먹는(감추는) 정도의 능력과, 역사를 만드는 정도의 능력

보통은 인간이지만, 만월의 밤에는 백택으로 변신하는 상백택이다. 인간일 때는 역사를 먹는 능력, 백택일 때는 환상향 전체의 지식을 가지고, 역사를 창조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이번 회의 이변을 보고, 상당히 강대한 힘을 가진 상대라고 생각, 요괴에게서 인간을 지키기 위해, 밤에는 인간의 마을을 봉쇄하기로 했다.

역사를 먹는 것으로 누구에게서도 마을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이다.

본인은 요괴지만, 인간이 매우 좋아서 항상 사람 편에 서 있다. 그 능력도,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처음으로](#)

○4면 보스 낙원의 멋진 무녀

하쿠레이 레이무

Reimu Hakurei

종족 : 인간

능력 : 주로 하늘을 나는 정도의 능력

매번 익숙해진 무녀씨.

보통 자고 있지만 아무리 자도 날이 밝아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 신사에서 날아왔다. 밤중의 출동은 드물지 않지만,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의 밤중에 출동하는 것은 드물다. 그렇지만 이 어둠은 어딘지 모르게 졸립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소동에서 결판이 나면, 또 한번 자러 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강한 요기를 향해 죽림까지 온 것이지만, 거기에서

본 범인은 잘 아는 인간과 요괴였다.

[-처음으로](#)

○ 4 면 보스 평범한 흑마술사

키리사메 마리사

Marisa Kirisame

종족 : 인간

능력 : 마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

평범한 마법사씨.

자시(11시~1시)가 지난 시점에서 숲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조금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잠깐 있자 그 예감은 적중한다. 자시를 넘겨서부터, 보통이라면 이미 날이 밝아져야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밤은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 이것 재밌겠는데, 라며 서둘러 출발했지만....., 범인을 발견했을 때 조금 초조해졌다.

[-처음으로](#)

○ 5 면 중보스 지상의 토끼

이나바 테위

Tewi Inaba

종족 : 요괴 토끼

능력 : 사람에게 행운을 주는 정도의 능력

건강에 신경을 쓰며 오래 사는 동안, 요괴로 변할 힘을 몸에 간직한 토끼.

영원정에 사는 많은 토끼의 리더이지만, 그 타고난 격한 성격은 요괴보다 요정에 가깝다.

죽림에서 헤매는 자가, 가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죽림에서 빠져나가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녀는 헤매는 죽림의 길안내역이라 생각된다.

실제로는, 그녀에게 받은 행운을 그런 곳에서 써 버리면 아깝기 때문이지만, 인간은 눈치채지 못한다. 바보니까.

[-처음으로](#)

○ 5면 보스 광기의 달토끼

레이센 우돈게인 이나바

Reisen Udongein Inaba

종족 : 달토끼

능력 : 광기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달에 사는 토끼.

붉은 눈동자는 지상의 토끼의 몇 배에 달하는 광기가 머문다.

현재는 카구야의 애완동물이다. 진짜 본명은 레이센(レイセン) 뿐이지만, 지상인의 눈을 속이기 위해 한자를 썼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자연스럽다.

우돈게인(優曇華院; 우담화의 정원)은 에이린이 붙인 애칭. 어쩌서 그런 애칭으로 불리는지는 불명.

거기에 에이린은 그녀를, 친근함을 담아 「우돈게」라고 부른다. 멋대로 애칭을 붙여놓고는 거기에 줄여서 부르기까지, 우주인의 사고는 잘 알 수 없다.

이나바는 카구야가 붙인 애칭. 오히려 토끼 전체를 이나바라고 부르고 있다.

카구야가 「이나바」라고 부르면, 그녀와 테위와 구별이 되지 않지만, 어차피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토끼라면 뭐든지 같은 것일까.

그녀는 지상인이 침략을 시작한 달에서 도망친 달토끼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카구야 에피소드로.

[-처음으로](#)

○ 6면 보스 달의 두뇌

야고코로 에이린

Eirin Yagokoro

종족 : 달사람

능력 : 온갖 약을 만드는 정도의 능력. 천재.

달의 주민. 즉 우주인. 지상에서 숨어 살기 시작해서 꽤 오래 되었다. 카구야와의 교제는, 머나먼 옛날 카구야가 달에서 살 때부터 시작된다.

야고코로 가는, 언제부터인가 달에서 살게 된 약의 천재집안. 그 중에서도 에이린의 지능은

발군이다. 그녀의 두뇌는 인간의 그것을 훨씬 웃돌지만, 역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때도 많다.

사실은, 카구야보다도 압도적인 힘을 가진다. 그러나 항상 카구야 이상이 되지 않도록 힘을 저장해두는 모양이다.

머나먼 옛날, 달의 공주였던 카구야의 죄가 벗겨졌을 때, 죄의 벌로써 지상에 떨어졌던 카구야를 달로 데려오기 위해 왔던 사자 중 한 명. 그저, 라는 이유로 카구야와 공모하고, 달의 사자를 전부 살해해버린다. 당시 카구야와 함께 살고 있던 천박한 지상인에게는, 입막음으로서 에이린 특제의 「봉래의 약」이 들어 있는 약 항아리를 건네주었다. 이 약, 마시면 죽지 않는 것이다.

그 지상인은, 봉래의 약을 쓰지 않은 모양으로 얼마 못 가 사망했다.
후에 알게 된 사실로는, 지상인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카구야 에피소드로.

또한, 사쿠야를 보고 대단히 놀라지만, 어째서인지는 에이린밖에 알지 못한다.

[-처음으로](#)

○최종보스 영원과 수유의 죄인

호라이산 카구야

Kaguya Houraisan

종족 : 달사람

능력 : 영원과 수유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카구야(カグヤ)는 달의 주민 일족으로, 달의 공주로 소중하게 키워졌다.

그 때문에, 제멋대로 굴도록 키워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카구야의 생활은 크게 바뀐다. 흥미본위로 에이린에게, 금단의 비약인 봉래의 약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손에 넣은 것이다.

그 일은 즉시 발각되어, 카구야는 처형되었다.

그러나, 봉래의 약을 가진 카구야는 죽어도 금방 부활하고, 사실상 죽을 수 없었다. 카구야는 벌로써 다음 생은 지상의 천박한 백성과 살아가도록 명령받아 지상에 떨어졌다. 얼마 못 가, 한

명의 지상인에게 발견되어, 그곳에서 카구야(輝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카구야는 지상에서 태어나, 지상에서 생활하는 옛 달의 주민이다. 얼마 동안, 아무런 부자유도 없는 생활이 가능했지만..... 점점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많아지고, 지상도 생활하기 어렵게 되었다.

수 년 후, 벗겨진 카구야의 죄를 보상받아 달로 돌아갈 때가 왔다. 그러나 신세를 진 지상인으로서의 은혜와 정, 마음에 든 지상에서의 생활, 어떻게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더러움 없는 곳도 있고,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카구야는 고민했다. 그럴 때 달에서 찾아온 사자 중 본 기억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 에이린이다.

에이린은 약을 만들어 두고 자신만은 무죄인 점도 있어서, 카구야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한 가득 있었다. 그 기분은 강하게, 카구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카구야와 함께 지상에 남기로 정했다.

에이린은 달의 사자를 배신하고, 카구야를 도피시켰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사람의 마을에서 떨어진 산속에 몰래 숨게 되었다. 그래, 그곳은 요괴라도 나올 듯한 산 속으로.....

——그 후로,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다.

언제부터인가 달에서 사자가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고, 두 사람은 이미 옛일 따위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어느 날, 카구야의 기억을 불러내는 일이 생겼다.

환상향이 인간계와 차단되어서부터, 이미 백 년은 지나려고 했던 때였다. 카구야는 언제나 그렇듯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몰래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한 마리의 요괴 토끼가 카구야에게로 도망쳐왔다. 그 토끼는 사실 달토끼라고 말하면서, 인간 이외가 사는 환상향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들어왔다고 한다. 그 토끼가 말하기를, 「달에 적이 쳐들어 와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달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고, 자신들의 것이라고 멋대로 말하고 있다」는 모양이다.

그 토끼는 달의 주민이 싸울 때, 동료들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며 도망쳐온 것이다.

카구야는 자신이 달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냈다.

인간이 달에 쳐들어와?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리가 없다.

반신반의했지만, 그 토끼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쨌거나 불쌍한 토끼, —이름은 레이센이라고 말했다, 를 집에 두게 되었다.

—더욱이 그 사건에서 수십 년이 지났다.

카구야와 에이린, 레이센의 세 명은, 또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에 있으면 누구나 느긋하게 평화적이 되어버린다. 과연 낙원 같은 곳이었다.

그런 어느 만월의 밤, 달토끼 동료가 쓴다고 하는 토끼의 파동을 레이센이 수신했다. 이것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 큰 귀로 회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달토끼의 특수능력이다.

그 내용은 이하의 것이었다.

「천박한 지상인은 달의 마력을 착취하고, 달에 기지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리들 달의 주민은, 인간과 어떻게든 공존의 방향으로 회의했지만,

이제 한계이다.

우리들 달의 주민은, 지상인에게 최후의 전면전쟁을 걸기로 하였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전력은 우리들 쪽이 약간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적의 근대병기는 우리들의 상상을 멀리 초월해 있다.

그러나 겁먹을 일은 없다. 우리들 달의 주민은 몇 천 년을 살아온 지혜와 금지가 있다. 질리가 없다.

레이센, 곧 달은 전장이 된다.

금지 높은 우리들과 함께 싸워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함께 있다고 생각되는 지상인에게 전해주게.

다음 만월의 밤에 레이센을 데리러 간다.

저항해도 소용없다.」, 고.

레이센은 슬슬 달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카구야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함께 있는 카구야들도, 지상인이 아닌 달의 주민이었던 것이다.

—카구야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죄를 범하기 전의 달에서의 생활을.

천박한 지상인과 생활하던 시절을.

자신을 맞으러 온 달의 사자를 죽이고, 숨어서 살게 된 것을.

카구야는 에이린과 상담하여, 레이센을 달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정했다. 사자를 죽여버려서는, 또 장소를 바꿔서 숨어살 필요가 생겨버린다. 그러나, 더 이상 몸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에는 질렸던 것이다. 어떻게든 달의 사자를 쫓아내어, 또한 당당하게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에이린에게 상담했다.

에이린은 카구야의 상담이 끝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지상에서 만월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달과 지상은 왕래할 수 없게 됩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만월은, 달과 지상을 왕래하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월의 밤에만 사자는 올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망가뜨리면.....,

지상은, 커다란 밀실이 됩니다.」

라고.

카구야들은, 진짜 만월을 숨기고, 지상인이 보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가짜 달로 바꿔치기하고, 그리고 약간만 일그러지게 한 것이다.

이것으로, 지상과 달을 왕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단지, 유일한 오산은, 만월의 힘에 의지했어야 할 요괴들의 힘이, 이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인간과 요괴의 힘에 의해 이 술법은 깨져버렸지만, 어차피 환상향은 닫힌 공간. 원래부터, 달에서도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임을 알았다.

지금은 카구야들과 숨어서 사는 것을 그만두고, 평범하게 영원정에서 살고 있다.

달?

달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상에서 기어다니며 사는 백성인 카구야들에게는 알 리 없는 것이었다.

○엑스트라 보스 봉래의 인형

후지와라노 모코우

Huziwara no Mokou

종족 : 인간

능력 : 늙는 일도 죽는 일도 없는 정도의 능력

봉래의 약을 복용하고, 계속 살아온 인간.

먼 옛날, 아직 불로불사가 아니던 시절, 그녀는 귀족 아버지를 둔 아가씨였다.

단지 그 존재가 감추어져 있고, 그다지 바라던 아이가 아닌 모양이다. 그런 어느 날, 부친은 어떤 신분 낮은 소녀에게 구혼하고, 난제를 풀지 못해 창피를 당했다고 한다. 그 소녀가 카구야이다.

그 이래로, 어린 그녀는 계속 카구야를 적시해왔다. 그녀가 달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반격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도망쳐버렸지만, 적어도 카구야가 남겼다고 하는 「봉래의 약」을 빼앗아버리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향아리를 손에 넣었다는 인간은 어째서인지, 그 향아리를 산에 버리려고 한 모양으로, 그곳을 노려 향아리를 빼앗는데 성공했다. 그 향아리에 들어있던 약은, 봉래의 약.....

그 때 이후, 그녀의 모습을 본 자는 없다.

성장하지 않는 인간은 같은 장소에서는 살 수 없다.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사는 곳을 바꾸면서 생활했다. 그러나 인간은 한 명으로는 살 수 없지만, 모코우는 죽을 수 없다. 배는 고프고, 상처라도 나면 아프지만 죽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의 마을에서 떨어진 산 속에서 요괴처럼 몰래 살아가게 되었다.

그 때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다.

지금은, 카구야와 서로 죽이는 것이 일상이다. 최초에 이 산에서 카구야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정말 놀랐지만, 놀랄 것도 없다. 이 몸을 만든 봉래의 약은 카구야가 두고 간 것이다. 달에 돌아간다고 했지만, 어차피 달에 돌아갈 리가 없다. 카구야도 사는 장소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이다. 어쩌서인지 갑자기 기운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카구야도 같은 인간인 것이다.

지금도 카구야는 싫다. 거기에 카구야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죽을 리는 없다. 어쩌면 이렇게 충실한 매일매일인 걸까. 사람의 마을에서 떨어진 산속에 있는 이 땅은, 진정한 봉래의 땅과 다를 게 없다.

살아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멋진 것일까.

[-처음으로](#)

<화영총 캐릭터 설정>

○낙원의 멋진 무녀

하쿠레이 레이무

Hakurei Reimu

종족 : 인간

능력 : 주로 하늘을 나는 정도의 능력

매번 익숙해져 있는 무녀씨. 환상향의 경계에 있는 하쿠레이 신사의 무녀씨.
하쿠레이 신사 자체는, 환상향과 인간계의 양쪽에 위치한다.

언제나 이변은 감으로 해결하는 그녀지만, 어쩌서인지 꽃의 이변은 전혀 짚이는 것이 없었다.

이번 회 같이 플레이어가 많은 게임이면,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도, 레이 무만은 눈에 띄지 않아도 주인공 같은 것은 어쩌서일까.

[-처음으로](#)

○평범한 흑마술사

키리사메 마리사

Kirisame Marisa

종족 : 인간

능력 : 마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 사는, 조금 평범한 마법사. 수집벽이 있다.

인간이 거의 찾아오는 일이 없는 마법의 숲에 살고, 마법의 연구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

모든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 있고, 이번을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다.

이번 회에서는 환상향의 어딘가에 가도 구석구석 이번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스스로의 발로 돌아다니기로 했다.

[-처음으로](#)

○완벽하고 산뜻한 메이드

이자요이 사쿠야

Izayoi Sakuya

종족 : 인간

능력 : 시간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 있는 호수 근처에, 그 붉은 저택은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메이드이다.

이번 회에서는, 일단 이번이라고 말하는 것이라서 상황을 보러 나간 것인데, 특별한 위험은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홍마관의 사람의 상황도, 특별히 당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반인반령의 반인분

콘파쿠 요우무

Konpaku Youmu

종족 : 인간과 유령의 혼혈

능력 : 검술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

명계에 있는 백옥루의 정원사.

원래는 아가씨의 검술 사범역이다.

환상향은 꽃이 가득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상황을 보러 나왔다. 꽃에 감추어진 채 유령도 많아진 것을 눈치챘지만, 일단 보고도 보지 않은 척을 했다.

[-처음으로](#)

○광기의 달토끼

레이센 우돈게인 이나바
Reisen Udongein Inaba

종족 : 달토끼

능력 : 광기를 다루는 정도의 능력

달에 사는 토끼.

붉은 눈동자는 지상의 토끼의 몇 배에 달하는 광기가 머문다.

환상향에 꽃이 핀 이후로, 영원정의 토끼들이 소란스러워졌다. 이래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조사하러 나왔다.

덧붙여 테위가 없어졌기에 데려오려고도 했다.

[-처음으로](#)

○얼음의 작은 요정

치르노
Cirno

종족 : 요정

능력 : 냉기를 다루는 정도의 능력

보통은 호수를 근거지로 하는 얼음의 요정.

기본적으로 요정이라서, 장난을 좋아하고 바보이다.

꽃이 지나치게 많이 피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다양한 자들이 호수를 지나가고, 거기에 요정들도 평소보다 소란러웠기에, 자신도 함께 소란스럽게 굴기로 했다.

[-처음으로](#)

○소령 키보디스트

리리카 프리즘리버
Lyrica Prismriver

종족 : 소령

능력 : 환상의 소리를 연주하는 정도의 능력

이곳 저곳에 가서는, 콘서트를 열기도 하는 영체 아티스트, 프리즘리버 3자매의 3녀.
건반악기가 특기로, 이 세상에서 없어진 환상의 소리를 사용한다.

꽃의 이번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단지 축제 분위기가 된 환상향을 보고, 언니들에게
는 말하지 않은 채 소리 소재를 모으러 나왔다.

[-처음으로](#)

○소령 트럼펫터

메를란 프리즘리버

Marlin Prismriver

종족 : 소령

능력 : 시끄러운 소리를 연주하는 정도의 능력

이곳 저곳에 가서는, 콘서트를 열기도 하는 영체 아티스트, 프리즘리버 3자매의 차녀.
관현악기가 특기로, 정신을 고양시키는 소리를 사용한다.

꽃의 이번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으로](#)

○소령 바이올리니스트

르나서 프리즘리버

Lunasa Prismriver

종족 : 소령

능력 : 우울한 소리를 연주하는 정도의 능력

이곳 저곳에 가서는, 콘서트를 열기도 하는 영체 아티스트, 프리즘리버 3자매의 장녀.
현악기가 특기로, 기분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사용한다.

꽃의 이번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으로](#)

○밤참새 요괴

미스티아 로렐라이

Mystia Lorelei

종족 : 밤참새

능력 : 노래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정도의 능력

새의 두목으로 노래만 부르고 있다. 민폐나 끼치는 요괴.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인간은 미치는 경우도 있다.

축제 분위기로 소란스러운 것을 매우 좋아하여, 이번 회의 꽃 이변에 싸인 환상향은, 그녀에게 있어서 딱 좋은 놀이터였다.

[-처음으로](#)

○행운의 토끼

이나바 테위

Inaba Tei

종족 : 요괴 토끼

능력 : 사람에게 행운을 주는 정도의 능력

건강에 신경을 쓰며 오래 사는 동안, 요괴로 변할 힘을 몸에 간직한 토끼.

영원정에서는, 수많은 지상 토끼의 리더이다.

이번 회에서는, 평소와 다른 풍경 때문에 크게 소란스러운 토끼들과 함께 영원정의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밖에 놀러 나갔다.

[-처음으로](#)

○전통의 환상 신문쟁이

샤메이마루 아야

Syameimaru Aya

종족 : 까마귀 천구

능력 : 바람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오니가 환상향에 있었던, 천 년 정도 전부터 살아온 천구.

원래는 까마귀. 바람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성격은 진지하고 융통성이 없다. 강한 자에게는 예의바르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나온다. 단지, 취재의 상대가 되면 항상 예의바르다.

그녀가 가진 힘은, 환상향에서도 최고 클래스이지만, 결코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녀에 한하지 않고 천구의 특성이다.

보통은 산에 살고, 바람과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소문을 좋아하여, 언제나 정보를 입수해서는, 친구 동료와 정보를 교환한다. 교환할 때마다 정보는 바뀌고, 거의 소문은 크게 부풀려진다.

친구 중에서도 그녀는 환상향의 여자아이들의 소문을 좋아한다. 스스로 관찰하거나, 동료에게서 입수하거나 하여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거의 없다. 단지, 어떤 정보도 다분히 소문이 섞여있는 것이다.

그녀는 「분분마루 신문」이라고 하는 부정기 신문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소문투성이인 신문이다.

이번 회 같은 이변이 생기면, 친구들은 대단히 기뻐한다. 이런 때에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이고, 그 정보를 기초로 신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작은 스위트 포이즌

메디슨 멜랑콜리

Medicine Melancholy

종족 : 인형

능력 : 독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

은방울꽃밭에 버려진 인형이, 오랜 세월을 지나 요괴화한 것.
요괴화한 후로 아직 몇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요괴 신참.
독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식물에서 채취한 어떤 종류의 성분은 동물을 미치게 한다. 그녀는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인간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또한, 자신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독은 통하지 않는다.

인형은 보통 인간에게 조종당한다. 그 때문에, 그녀는 인형해방을 강하게 바라지만, 찬동하는 인형은 없었다. 어차피 다른 인형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아직 필 리가 없는 은방울꽃이, 올해는 일제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뿐인가, 함께 필 리가 없는 가을의 꽃도 피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환상향에는 미지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하게 생각했다.

[-처음으로](#)

○사계절의 플라워 마스터

카자미 유카

Kazami Yuka

종족 : 요괴

능력 : 꽃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 사는 요괴. 꽃을 다루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계절의 꽃을 매우 좋아하여, 봄에는 봄의 꽃, 여름에는 여름의 꽃, 가을에는 가을의 꽃, 겨울에는 적지만 겨울의 꽃을, 일 년 중 꽃이 피어 있는 곳을 향해 이동한다.

이번 회, 꽃으로 짝 차버린 환상향을 본 그녀는, 놀랄 일도 없이 사태를 이해했다. 이해한 후에 쪽 이대로라면 행복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이번은 언젠가 반드시 해결되어 버린다. 그녀는 얼마만의 이 이변을 즐기기로 했다. 60년에 한 번 있는 이변, 즐기지 않으면 아깝다.

이렇다 할 목적의식도 없이, 꽃을 즐기면서 자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반복한다.

[-처음으로](#)

○삼도천의 수상안내원

오노즈카 코마치

Onozuka Komachi

종족 : 사신

능력 : 거리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과 피안 사이의 강을 안내하는 요괴.

거리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인간은 죽으면 강을 건넌다. 그녀는 그 강을 건너는 방법을 사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녀의 기분에 따라, 강폭과 깊이가 변한다. 너무나도 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했다면, 강을 건너는 것도 불가능할 때도 있다.

사신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죄의 양 따위가 아닌 돈이다.

돈이라고 말하면, 고인의 재산이 아닌, 고인을 마음 속에서 그리워하는 사람의 재산의 합계이다. 덧붙여 죄의 양으로 재판하는 것은 그녀의 일이 아니라 강을 건넌 뒤의 이야기이다.

사후, 그녀에게 강을 건널 돈을 청구받으면, 손에 쥐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닌, 주변의 인간의 재산의 합계에 맞는 돈이 되는 것에 놀란다.

부자들은 생전에 미움 받은 일도 많고, 돈을 청구받으면 손에 쥐 돈이 적은 것에 놀라는 일도 있다고 한다.

물론, 손에 쥐 돈을 전부 청구하지만, 이 때 내기 어려울 만한 인간은 강의 도중에서 떨어져 버린다. 강폭은 끝없이 넓어지고, 헤엄쳐서 지쳤을 때, 강에 사는 절멸한 대형 물고기나 수룡에게 먹혀버린다.

이번 회, 환상향이 꽃에 묻혀버리게 된 것은, 그녀의 일이 허용량을 오버해버렸기 때문이다. 너무나 사자의 혼이 많아서, 명계에 보낼 수 없는 혼이 환상향에 남겨져, 어찌할 바를 모르던 영혼들이 자기와 관계가 깊은 꽃에 몸을 의지했던 것이다.

코마치는 일시적인 것, 이라고 하면서 초조하지 않고 마이페이스로 일을 했지만, 그녀의 보스에 해당하는 시키에이키의 눈에 들어, 혼나버리고 말았다.

-처음으로

○낙원의 최고재판장

시키에이키 야마자나두

[야마자나두는 '낙원의 엄마'라는 뜻, 시비곡직청(재판소)의 관직 중 하나]

종족 : 엄마님

능력 : 흑백을 구분하는 정도의 능력

지옥에 살면서 사자를 재판하는 신. 흑백을 구분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다.

그녀의 이름은, 시키 • 에이키이며, 야마자나두는 엄마님의 직책 중 하나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담당부문을 표시한 이름이 붙는다.

인간과는 달리, 사물의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가진다. 그 판결은 사자에게는 덮을 수 없다. 그 선악의 기준은 이상할 정도로 복잡하고, 사건의 발생부터, 관계자의 삶까지 모두가 죄의 무게에 영향을 준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들통나지 않는 일이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절대 조건이 된다. 들통나면 커다란 마이너스가 된다.

그녀는 보통, 사자의 죄를 묻고, 지옥인지 천계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의 어딘가에 가는지 판단한다. 그 일의 영향인지, 조금 설교가 많다.

그녀가 환상향의 이변을 눈치챈 것은, 코마치가 너무 사자를 보내주지 않은 때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가 환상향을 보고 있자, 이미 온통 꽃으로 묻혀버렸다.

피안화, 해바라기, 은방울꽃, 연꽃, 그리고 벚꽃과, 온갖 꽃이 동시에 피어있었던 것이다.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자, 거기에 살아있는 인간과 요괴들이 살기등등하여 공격해왔다.

그 모습을 보고 금방 사태를 이해했다.

이것은 60년째의 「그 해」이다, 라고.

이 꽃들은 전부 사자의 혼이 깃든 것이고, 혼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코마치의 태만에 의한 것이다.

코마치는 너무나 마이페이스인 성격의 사신이라서, 꽃으로 묻혀버렸어도, 예쁘네~,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녀가 꽃으로 묻혀버린 환상향을 원래대로 돌릴 리는 없지만, 시간과 함께 원래대로 될 것이다. 실제 피해도 거의 없겠지.

그것보다도, 눈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이 있다. 그녀의 성격상, 그것을 지나칠 수는 없었다.

[-처음으로](#)

<풍신록 캐릭터 설정>

○낙원의 무녀

하쿠레이 레이무
Hakurei Reimu

종족 : 인간
능력 : 주로 하늘을 나는 정도의 능력

매번 익숙해져 있는 무녀씨. 하쿠레이 신사의 무녀씨.

누구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보는 성격이다. 단지, 본업은 요괴퇴치이기 때문에, 요괴에 대해서는 엄격한 포즈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도 요괴에게도 별로 흥미는 없다.

다만, 이번 회는 신을 둘러싼 소동이다. 신의 대변자로서, 단순한 요괴퇴치와는 상대가 달라서, 망설이는 기미.

[-처음으로](#)

○평범한 흑마술사
키리사메 마리사
Kirisame Marisa

종족 : 인간
능력 : 마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 사는, 평범한 마법사. 수집벽이 있다.

비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도 솔직하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마법사는 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러운 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솔직하다.

이번 회에서는 레이무가 움직였으니까 멋대로 움직였지만, 이번다운 이번이 일어나지 않은 모양으로 보였기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뭘 말해야 좋을지 생각하면서 산에 도전했다.

[-처음으로](#)

○1면 중보스 정숙과 증언의 상징
아키 시즈하
Aki Sizuha

종족 : 단풍의 신

능력 : 단풍을 담당하는 정도의 능력

1면 보스 미노리코의 언니이다. 보통은 자매가 환상향의 가을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들은 그다지 전투는 잘하지 않지만, 인간이 가을을 방해하러 왔기에, 경고도 겸해서 조금 혼내주려고 생각했다.

가을 중에서도 단풍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도 아름다운 단풍을 보여주고는, 우월감에 젖는다.

겨울이 오면 어두워진다.

[-처음으로](#)

○ 1면 보스 풍요와 결실의 상징

아키 미노리코

Aki Minoriko

종족 : 풍요의 신

능력 : 풍요를 담당하는 정도의 능력

1면 중보스 시즈하의 여동생이다. 보통은 자매가 환상향의 가을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매년, 마을에서 열리는 수확제에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다. 수확 전에 불려나가지 않으면, 풍작은 약속할 수 없는 것이지만, 뭐,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그녀도 지적하지 않는다.

언제나 과일과 농작물의 달콤한 향기를 날리며, 조용한 언니에 대해 우월감에 젖는다.

겨울이 오면 어두워진다.

[-처음으로](#)

○ 2면 보스 신비가 흐르는 인형

카기야마 히나

Kagiyama Hina

종족 : 재앙신

능력 : 재앙을 담아두는 정도의 능력

비극이 흐르는 히나군단의 장이다. 액막이로 얻은 재앙을 모아서, 담아두고 있다.

그 때문에, 그녀 주위에는 일반인이 보아도 알 정도로 재앙이 씌어 있다.

그녀 주변에서는, 어떤 인간이나 요괴도 불행해진다. 다만, 그녀 자체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주변에 모아둘 뿐이다.

그리고, 재앙이 또다시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다.

[-처음으로](#)

○ 3면 보스 초요괴탄두

카와시로 니토리

Kawasiro Nitori

종족 : 캣파

능력 : 물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요괴산에 사는 캣파이다. 최근, 캣파는 함부로 인간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지만, 캣파는 인간을 숨어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는 사이가 좋을 작정이다.

돌연 태도와 말투를 바꾸거나, 조금 기이한 성격의 소유자지만, 의외로, 낮가림이 심하다. 인간을 보면 바로 도망친다.

엔지니어 성향이 짙어서, 인공물을 보면 바로 분해했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것을 위한 공구가, 그녀의 옷에 뺨뺨하게 들어있다.

이번 회에서는, 산에 들어오려고 한 레이무들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지만, 그것은 산이 긴급사태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레이무들은 경고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토리는 남몰래 산속으로 들여보내기로 했다. 이왕에 수수께끼의 신에게 만나게 해 보려고 생각한 것이다.

옥신각신한 소동의 결과, 결국 캣파는 새로 온 산의 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으로](#)

○ 4면 중보스 끝의 초계천구

이누바시리 모미지

Inubashiri Momizi

종족 : 백랑천구

능력 : 천리 밖을 내다보는 정도의 능력

요괴산에서 순찰을 도는 친구.

시각, 후각 모두 뛰어나서, 침입자를 순식간에 발견한다.

침입자를 발견하면, 먼저 간단한 공격으로 위협하고, 그래도 힘겨운 것 같으면 대천구님에게 보고하러 돌아간다.

그녀의 부대는 보통, 폭포의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녀는 협조성이 높은 성격으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다.

요괴로서는 드물지만, 친구의 사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다.

단지, 요괴산에는 그다지 침입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한가하다.

대기 중에는, 한가하게 있는 근처의 캣파와, 대장기로 불리는 이상하게 시간이 걸리는 게임을 몇 판이나 즐기고 있다.

수명이 긴 요괴들에게 있어서, 시간때우기의 수단을 찾는 것도 힘들다.

[-처음으로](#)

○ 4 면 보스 마을에 너무나 가까운 친구

샤메이마루 아야

Syameimaru Aya

종족 : 까마귀 친구

능력 : 바람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요괴산의 신문기자. 주로 환상향의 소녀들의 로컬뉴스를 신문으로 만드는 친구이다.

이번 회에서는, 백랑친구에게서 침입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자경대 리더인 대천구의 총지휘 하에, 백랑친구가 교섭, 다시 경비하게 된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대천구는 보도기관인 그녀를 불러내서 교섭하라고 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현장에 향했고, 그 의문은 바로 풀렸다.

침입자는, 그녀가 언제나 신문의 기삿거리로 하고 있던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즉 대천구는, 아야가 침입자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목적은 무엇인지 캐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는 적당히 봐주면서 싸우는 시늬를 보이고, 일부러 졌다. 싸우지도 않고 산에 들여보내면, 그녀가 인간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야는 인간에게 진 척을 해서, 최근 나타난 수수께끼의 신사로 안내했다.

대천구에게는 『침입자의 목적은 산에서 폐를 끼치는 손님이 왔다고 하는 것이어서, 천구사회에 창 끝이 향하지 않도록, 최근 나타난 수수께끼의 신사의 상태를 보러 가게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대천구는 그 보고를 듣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공을 세운 아야를 칭찬했다.

그리고, 말단인 이누바시리에게 이어서 인간의 감시를 명령하고, 그 수수께끼의 신사의 상태를 정탐하게 하였다.

이누바시리의 보고에 의하면 수수께끼의 신은 인간과 전투를 하였지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놀이를 즐기는 것 같았다. 성격은 지극히 밝고, 두뇌는 명석. 위험성은 낮고, 오히려 우호를 다지는 것으로, 산의 요괴의 생활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보고였다.

그 후로, 천구의 두령인 천마님과, 산의 신 사이에 비밀 교섭이 진행되게 되었다.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사이 좋게 산에서 사는 자로서 우호관계를 쌓게 되었다, 고 알려졌다.

그 이래로, 천구와 캣파는 새로운 신을 신앙하게 되었다.

신앙이라고 해도, 함께 연회를 열 정도의 것이지만.

-처음으로

○ 5면 보스 기도받는 바람의 인간

코치야 사나에

Kotiya Sanae

종족 : 인간

직업 : 바람신의 무녀

능력 :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의 능력

일자상전[대대로 한 명에게 기술을 전해줌]의 비술을 가진 인간이다.

성격은 대단히 진지하며, 자신의 힘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지나치게 과신하는 일도 있다.

원래는, 바람신을 모시는 인간이었던 모양이지만, 비밀이 많은 비술로 비바람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동안, 주변의 인간들은 비술을 행하는 인간 자체를 신앙하게 되었다.

즉, 바람신이 일으킨 기적을, 어느 새인가 인간이 일으킨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그녀들 비술을 다루는 인간은 인간이면서도 신앙을 모아, 신과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현인신이다.

사나에는 어릴 때부터, 구전으로밖에 전해지지 않는 기적을 부르는 비술을 마스터했다. 어린 아이면서 기적을 부르는 그녀는, 많은 신앙을 모을——터였다.

그러나, 바깥 세계는 많이 바뀌어 있었다. 신덕 많은 신조차 신앙하는 인간이 격감해 있었다. 당연히, 인간이면서 신이 된 현인신 따위, 신앙할 인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사나에는 딱히 신앙이 없어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으니 문제는 없었지만, 사나에가 모시고 있는 신, 카나코는 그럴 수 없었다.

신은 신앙을 잃으면 힘도 잃는다. 신덕도 낼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신의 죽음과 같다.

카나코는 결단했다. 인간에게서 신앙을 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는 요괴의 신앙을 모으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사나에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놀랐다. 우리 나라에는 예부터 『환상향』이라는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는 지금도 몰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환상향에서는 바깥 세계에서 잃어버린(환상이 되어버린) 것이 모여있다. 즉 신으로 향한 신앙도, 환상향에 옮겨갔다고 생각된다.

거기에서 카나코는, 환상향에 신사째 이동한다고 말했다. 인간 세계와의 결별이었다.

인간 세계와의 결별은 공포였지만, 그 이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진 그녀에게 있어서, 기적의 세계로 향하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그녀는 환상향의 인간을 솔직히 무시하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하쿠레이 신사를 위협하면 환상향 자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레이무를 위협하러 갔고, 그리고 이번 회처럼 역으로 아프게 당해버린 것이다.

환상향에 사는 인간은, 그녀가 생각한 이상으로 귀찮고, 그리고 힘을 가진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현인신 따위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부터는 환상향의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처음으로](#)

○ 6면 보스 산비탈과 호수의 권화

야사카 카나코

Yasaka Kanako

종족 : 신

능력 : 하늘을 창조하는 정도의 능력

최근, 요괴산에 신사째 이사온 신이다.

야사카(무수히 많은 산비탈)라는 이름대로, 산의 신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비바람의 신이다.

비바람을 담당하는 것은, 즉 농업의 신으로 축복받는 것이다.

산의 신으로서 축복받게 된 경위는 이상하게 복잡하고, 그 진의를 아는 것은 카나코와 스와코 둘뿐이다.

카나코의 트레이드 마크인 『금줄』은, 뱀이 얽혀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탈피를 반복하는 뱀은, 부활과 재생, 영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수명을 알게 되어, 영원을 믿지 않게 되었다.

농업도 바람과 비에 대항하는 기술을 손에 넣어갔다.

산은 화산과 지각변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다. 산을 넘을 때의 위험도 잃어버렸다.

그렇다, 인간은 과학과 정보를 신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와 함께, 그녀들 신에 대한 신앙심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녀는, 신앙심을 되돌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커다란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신사를 인간의 세계에서 환상의 것으로 하여, 환상향에서 신앙을 모으는 것』

이었다.

현재 남겨진 신앙이 전부 없어져, 일시적으로 힘을 잃지만, 가능성은 그 쪽에 있다. 스러져가는 과거의 영광보다, 가능성 있는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예상외로 부드럽게 환상향에서 신사는 받아들여져, 빠르게 요괴산의 신으로서 기도받기 시작했다.

너무나 부드럽게 진행되는 것에 몇 번이나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환상향의 구조를 보고, 그 이유를 어떻게든 알게 된 기분이 들었다.

환상향에는 하쿠레이 신사라는 신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신사는, 신앙심은 거의 바닥났지만, 요괴들에게 인기가 있고 항상 누군가 드나드는 요괴가 있다고 하였다.

요괴에게 있어 신사는, 좋은 놀이터가 되어 있었던 것이겠지.

카나코는 신앙의 대상과 함께, 요괴의 놀이 상대로서 받아들여졌다.
연회도 매일 밤 열렸다.

사실, 신은 함께 노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축제라는 것은 인간과 신이 함께 노는 것이다. 일상을 잊고 함께 노는 것으로, 신과 인간은, 인간들의 공동체처럼 유대감을 갖는다. 인간과 요괴로 바꿔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카나코가 바란 『신앙』의 형태였다.

그러나 카나코가 가진 환상향의 지식은 빈약하다.

환상향의 요괴들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상관없이, 산의 요괴들의 신앙을 모아, 그 대신 거대한 신덕을 주었다.

그 일이, 산의 요괴, 즉 천구와 캣파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그 일로, 평온한 환상향의 파워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카나코는, 환상향의 밸런스를 되찾기 위해 이제부터 산기슭의 요괴와 인간의 신앙을 모을 필요
요가 있겠지.

그걸 위해서는, 하쿠레이 신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환상향에서 바깥 세계와 동등한 신앙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처음으로

○엑스트라 보스 토착신의 정점

모리야 스와코
Moriya Suwako

종족 : 신
능력 : 땅을 창조하는 정도의 능력

모리야 신사에 사는 진짜 신.
산의 신이며, 산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신의 리더이기도 했다.

머나먼 고대, 그녀는 경이적인 신앙심을 갖고 있던 『미샤구지님』을 묶어둔 신이었다.
미샤구지님은, 탄생, 농작, 군사, 다양한 사향의 재앙신이며, 소홀히 하면 즉시 신벌이 내린다
고 하는 공포의 신이다.
그 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이 스와코 뿐이었다.
그 때문에, 그녀로의 신앙은 굉장했으며, 당시에는 신이면서 동시에 일국의 왕으로서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그런 그녀의 왕국에 야마토의 신들이 침략해 온 것이다.
왕국을 방문한 야마토의 신은, 카나코였다.
야마토의 신들은, 작은 왕국을 차례차례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모든 나라를
통일하여, 일본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스와코는 저항하였고 당시 최첨단이었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
그러나, 카나코가 가는 식물의 덩굴을 들어올리자, 스와코가 가지고 있던 대량의 철류는, 곧
녹슬어서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 신력의 차에 패배를 확신한 스와코는, 깨끗하게 항복하고 왕국을
비워주었다.

그리고, 카나코는 모리야 왕국을 손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모리야 왕국의 인간은, 토착신인 미샤구지님의 공포를 잊을 수 없어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다.

카나코는 신앙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왕국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새로운 신을 불러 모리야(洩矢)의 신과 융합시켜, 그 신을 왕국에서는 『모리야(守矢)』, 밖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누어 부르게 하였다. 이것으로 왕국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리야(守矢)는 물론, 모리야(洩矢)이다. 그리고 카나코는, 스와코의 힘을 빌려 스스로 산의 신으로 몰래 군림하게 되었다.

이 왕국을 지배했다고 하는 새로운 신은, 야마토 신화의 명목을 잇기 위한 이름뿐인 신이었다. 실제로는, 스와코가 이어받아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현재 바깥 세계의 신은 대부분 야마토 신화에 바꿔치기 되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아직 고대의 모습대로 몰래 신앙을 얻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얻어온 신앙도, 과학의 시대가 되자 점점 잃어갔다.

스와코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초조했던 카나코가 신사째 환상향에 가져간다고 하는 황당한 방법을 실행해버렸다.

스와코가 환상향에서 잘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후의 놀이로서 즐겨주기로 했다. 왜, 멋대로 왕국을 버리고, 환상향에 와 버린 카나코를 달랠 수 없었는가 하면, 이제 바깥 세계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인간은 거의 없었다.

어차피, 가장 가까운 인간일 터인 사나에마저, 스와코를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나에는 지금은 카나코의 무녀이지만, 기적을 부르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녀가 사실, 스와코의 먼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상관없이, 사나에는 왜 자신의 신사에 두 명의 신이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른다고 하는 상태이다.

이제는, 스와코는 잊혀져 간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다. 오히려 환상향에서 제 2의 인생을 보낼 수 있어서, 실제로는 카나코에게 감사하고 있다.

자, 카나코는 바람신이면서, 어째서 뱀의 형상을 한 금줄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고 있는 것일

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뱀이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샤구지님의 공포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와코에게 이겼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필하기 위해서이다.

어째서냐고?

스와코는 개구리의 모양을 한 신이고, 그리고 뱀은 개구리를 먹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왕국의 신사에도, 개구리를 산제물로 바치는 일이 성행해, 인간에게

『이 왕국은 개구리 대신 뱀이 지배했다』라고 계속 어필했다.

이것이, 스와코와 카나코가 자주 싸우는 원인 중 하나였다.

사실은 이해도 일치하고, 매우 사이가 좋다.

[-처음으로](#)

<비상천 캐릭터 설정>

○전통의 환상 신문쟁이

샤메이마루 아야

종족 : 천구(까마귀)

사는 곳 : 요괴의 산

능력 : 바람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오히려, 움직이는 것이 그 것이 바람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바람을 타고 날며,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자유자재로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의 소문을 잡는 것도 잘 한다.

성격 : 두뇌명석, 사람 앞에서는 정중한 태도를 보인다. 비호전적.

그녀의 사고능력은 이상하게 높고,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제쳐두고, 사람의 몇 배의 스

피드로 생각을 굴린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예상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며. 그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상대의 레벨을 맞춰주기 때문에, 함께 있는 누구라도 기분이 나빠진다.

싸우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싸움을 걸면서 다닌다. 단지 원래 싸우는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싸움에 응해주는 사람은 드물기에, 불평하며 단념하게 된다.

-처음으로

○광기의 붉은 눈동자

레이센 우둔게인 이나바

종족 : 달토끼

사는 곳 : 영원정

능력 : 광기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빛이 파동[波]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상식 같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시각을 설명할 수 없다.

공간, 그 것이 파동이며, 거기에서 사는 생물, 물질, 물론, 빛도 파동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생물의 사고도 감정도 파동으로 되어 있으며, 그 파장이 다른 것에서 성격의 차이가 생겨난다.

레이센은 그 파동을 조종한다.

파장이 짧으면 광기가 보이고, 파장이 길면 화창한 기운[暢氣]이 보인다.

그리고, 완전한 역위상(逆位相)을 잡으면.....상대의 모든 감각에서 모습을 감추고, 인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성격 : 광기와 창기(暢氣)의 소유자. 전투시와 그 이외의 성격이 다르다.

원래, 지상의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적다. 모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성격을 바꾼다.

결코 뛰어난 성격은 아니지만, 때로는 레이무 못지 않게 멍한 일면도 보인다.

-처음으로

○삼도천의 수상안내인
오노즈카 코마치

종족 : 사신
사는 곳 : 지옥
능력 : 거리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특히 길의 거리가 변한다.

거리는 보는 사람의 거리도 조종하기 때문에, 가깝게 가려고 해도 멀리 가려고 해도, 일정한 거리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쫓아도 가까워지지 않고, 도망쳐도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공포심을 준다.

성격 : 기질이 좋지만, 컨디션도 좋다.

밝고, 에도 토박이마냥 돈 주는 기질이 좋다.
단지, 일은 자주 농땡이 피우지만, 주눅든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없다.

상대를 추켜세우기도 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하는 등 같이 있으면 재미있다.

이것은, 사신 전반의 성격이 아닌, 그녀의 성격.
사신에도 다양한 자들이 있다.

-처음으로

○아름다운 비색의 옷
나가에 이쿠

종족 : 요괴(용궁의 사자)

용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사이에 사는 요괴.

우연히, 흔적이나 시체를 인간이 찾아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다지 살아있는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다.

용의 말을 이해하고, 중대한 내용만 인간과 요괴에게 전하라는 말을 듣는다.

이상하게 긴 날개옷을 스스로 비색으로 빛나게 하여, 말 할 수 없이 고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날개옷을 인간이 몸에 두르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사는 곳 : 구름 속

인생의 태반을 구름 위에서 떠다니며 살고 있다.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아하게 떠다니며, 용신의 상태를 지켜본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일은 거의 없다.

능력 : 공기를 읽는 정도의 능력

그 자리의 특성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곧바로 익숙해질 수 있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그 자리를 망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부드럽게 강함을 제어한다.

때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모든 공격을 흘려보낸다.

성격 : 어떤 자리에서도 주역이 되는 일은 없다. 귀차니스트.

항상 느긋하게 있고, 상대의 행동에 흥미가 없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일은 적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일이 많다.

[-처음으로](#)

○비상비비상천의 아가씨

히나나위 텐시

종족 : 천인 나부랭이(天人くずれ)

천계에 사는 불량천인.

히나나위 가는 원래 지진을 진정시키는 요석을 지키는 신관이였다.

그러나 히나나위 가의 요석의 존재도 텃없이 지진은 빈번히 일어났다.

그 동안 큰 지진에 의해 지진을 담당하고 있던 천인, 오오무라노가미의 일이 따라잡지 못해, 환상향 일대의 지진은 당시, 오오무라노가미를 모시고 있던 나위 일족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나위 일족은 지상의 신관이었지만, 사후에 나위노가미라고 불려, 신령으로서 산의 연못에 있는 작은 신사에서 기도받게 되었다.

나위노가미는 지금도 조용히 환상향을 지켜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생전에 나위노가미의 부하였던 히나나위 일족도, 그 공적을 기려, 천계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히나나위 일족은 다른 천인과는 다르게, 수행을 쌓은 것도 아니고, 단지 나위노가미를 모신 것 뿐이고, 천인으로서의 격을 갖추지 않아서, 천계에서는 불량천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히나나위 치코(地子)는 나위노가미를 모시던 부모를 이어 천인이 되었을 뿐인, 어린 아이였다.

그 치코는, 천인이 되었을 때 텐시(天子)로 개명했다.

텐시는, 천계에서의 자신의 처우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때로 환상향을 내려다보며 마을의 인간과 요괴들을 부럽게 생각하였다.

그런 어느 날, 환상향의 요괴들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이변을 일으키고, 환상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즐겁게 보았을 때, 텐시는 강하게 생각했다.

「이제, 지루한 천인 생활 따위 질렸어!

나도, 이번 정도 일으킬 수 있는데」

텐시는 집을 뛰어나왔다.

천계의 도구인 비상(飛上)의 검을 꺼내들고.....

사는 곳 : 천계

능력 : 대지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지진을 진정시키거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유효범위는 좁지만, 환상향 안에서라면 원격으로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지반침하와 토사붕괴 따위의 피해도 자유자재.

또한, 환상향에 요석을 두기도 하고, 가져가는 것도 가능한 것이, 히나나위 일족 뿐이다.

요석을 없애면, 환상향 전체의 지반이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

비상의 검의 능력 : 기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

비상의 검은, 반드시 상대의 약점을 찌를 수 있는, 천인밖에 다루지 못하는 검이다.
이 검은 먼저 상대의 기질을 안개로 바꾸어,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꾼다. 그리고, 그 기질의 약점인 성질을 감싼다.

비상의 검이 보여주는 기질의 형체는, 천기이다.

비상의 검으로 베인 기질은 비색의 안개가 되어, 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텐시는 비상의 검과 요석만 있으면, 천, 지, 인 모두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성격 : 온실 속에서 자라서, 자기중심. 대단히 제멋대로.

대개 천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속세의 사람과 비슷하고, 위엄이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본인은 천인으로서의 자각이 없고, 부모가 맡은 신관이 신격화되어, 그 덤으로 일족 전체가 천인이 된 것 뿐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축복받은 환경은, 놀기 좋아하는 텐시에게 있어서는 악영향이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도 그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에 절대적인 자신이 있고, 능력을 사람에게 알보이면 격앙한다.

-처음으로

<지령전 캐릭터 설정>

- 낙원의 무녀
- 하쿠레이 레이무

Hakurei Reimu

종족 : 인간

능력 : 주로 하늘을 나는 정도의 능력

매일 익숙해진 무녀씨. 하쿠레이 신사의 무녀씨.

누구를 대해서도 평등하게 보는 성격이다. 단지 본업은 요괴퇴치이기 때문에, 요괴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포즈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도 요괴에게도 별로 흥미가 없다.

지저보다는 높은 곳이 좋다.

[-처음으로](#)

○평범한 마법사

키리사메 마리사

Kirisame Marisa

종족 : 인간

능력 : 마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능력

환상향에 사는, 평범한 마법사. 수집벽이 있다.

빠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솔직하다.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마법사는 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러움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솔직하다.

어둡고 좁은 곳은 굉장히 좋아한다.

[-처음으로](#)

○경계의 요괴

야쿠모 유카리

Yakumo Yukari

종족 : 요괴

능력 : 경계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보통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신출귀몰한 요괴.
이번 회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음양옥을 만들었다.

지저는 지상의 요괴들과는 다른 사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간섭하려 하지 않는다.
갑작스런 원령의 출현에 당황한다.

뭔가 커다란 이변이면 싫은데, 영향력이 작은 레이무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처음으로](#)

○작은 백귀야행

이부키 스이카

Ibuki Suika

종족 : 오니

능력 : 밀도를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지저에 살고 있던 오니 중 한 명.

최근에는 지상에 나와 있었지만, 보통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불명.

지저에서 무언가 일어난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유카리의 작전에 따라갔다.

스스로 조사하러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재미있는데다 귀찮은 것도 아니라서, 술 마시면서도 가능한 유카리의 방법이 마음에 들었다.

[-처음으로](#)

○전통의 환상 신문쟁이

샤메이마루 아야

Shameimaru Aya

종족 : 천구

능력 : 바람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산에 살고 있는 천구로 신문기자.

산의 신과 캣파가 뭔가 불온한 행동을 취하고 있어서 잠입취재했더니, 수수께끼가 지저세계로 이어졌다.

이것을 취재하여 기사로 하면 신문 부수 증가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레이무를 이용했다.

천구에게 있어서 지저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다.

[-처음으로](#)

○칠색의 인형사

앨리스 마가트로이드

Alice Margatroid

종족 : 마법사

능력 : 인형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숲에 사는 인형사.

간헐천에서 불온한 공기를 느꼈지만, 요괴가 지저에 내려가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었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럴 때, 마리사가 간헐천을 흥미진진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마리사를 설득해 지저에 조사하러 보내기로 했다.

마리사에게는 온천을 즐기는 게임이라고 말하고, 간헐천의 근원에 보낸 것이다. 유카리가 만들어 준 원격조작 가능한 인형을 주고.

[-처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대도서관

파츄리 나우릿지

Patchouli Knowledge

종족 : 마법사

능력 : 마법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홍마관에 사는 마법사.

간헐천에서 대량의 지령들이 떠오른 것을 눈치챘다.

잘 조사해 보니 그 지령들은, 겉보기에는 유령과 비슷했지만 조금 다른 원령들이었다.

원령은 유령과 달리 세상을 원망하는 영이다. 인간과 요정, 요괴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들이다.

자신은 조용히 원령이 실린 책을 찾고 싶었지만, 일단 누군가에게 간헐천 조사를 시키지 않으면 위험하다.

곤란해진 파츄리는 유카리에게 상담했다. 유카리도 놀란 모습으로, 인간들을 지저에 보낼 계획을 생각해낸다.

[-처음으로](#)

○초요괴탄두

카와시로 니토리

Kawasiro Nitori

종족 : 캣파

능력 : 물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산에 사는 캣파.

캣파들에게 놀랄 만한 뉴스가 들어왔다. 산의 신께서 말하시길, 지저에 초고온의 핵융합로가 완성되어 있다는 것.

하루빨리 그 궁극의 에너지를 손에 넣어, 이리저리 시험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캣파는 오니가 사는 지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도 지저를 조사하고 싶었는데, 그 때, 레이무가 요괴의 요청으로 지저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저쪽에서 선수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니토리는 할일 없어보이던 마리사에게 말을 걸어, 지저로 보내게 되었다.

[-처음으로](#)

○1면 중보스 무서운 우물의 요괴

키스메

Kisume

종족 : 츠루베오토시

능력 : 도깨비불을 떨어뜨리는 정도의 능력

어두운 밤에 길을 걷다보면 바로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부딪혀버리는 공포의 요괴.

보통은 동굴과 우물 속에 있다. 좁은 곳이 아주 좋아서 항상 두레박 안에 들어가 있는 소심한 요괴이다.

[-처음으로](#)

○1면 보스 어두운 동굴의 밝은 그물

쿠로다니 야마메
Kurodani Yamame

종족 : 츠지쿠모
능력 : 병(주로 전염병)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옛 도시와 동굴의 안에서 활동하는 요괴.
인간과 싸울 때 전혀 저항감이 없다. 호전적으로 성격은 밝다.

단지 그 능력 때문에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미움받는다. 하지만 본인은 함부로 상대에게 병을 옮기거나 하지 않는다. 잘 말해보면 밝고 재미있는 요괴로, 지하의 요괴들에게 인기가 많다.

[-처음으로](#)

○2면 보스 지각 밑의 질투심
미즈하시 파르시
Mizuhashi Parsee

종족 : 하시히메
능력 : 질투심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일단, 지상과 지하를 잇는 수직동굴(縱穴)의 파수꾼이자 수호신이다.
지상세계에서 무사히 지하세계로 도달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지하세계에서 지상세계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켜본다.

단지, 이상하게 질투심이 깊어, 즐겁게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녀석을 발견하면, 바로 방해를 해버린다.

질투는 또다른 질투를 낳아, 그녀는 질투광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질투심을 부추기는 것도 가능하다.

[-처음으로](#)

○3면 보스 전해지는 괴력난신
호시구마 유기
Hoshiguma Yugi

종족 : 오니

능력 : 괴력난신을 가진 정도의 능력

스िका와 함께 산의 사천왕이라고 불린 오니의 한 사람. 지금은 옛 도시에 살고 있다.

옛 도시는 예전에는 지옥의 일부였지만, 지옥의 축소와 더불어 분리된 토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괴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괴가 오니이다.

오니는 지상의 인간에게 혐오감을 느껴 스스로 떠나, 지옥의 남은 땅에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였다.

오니들은 그 외에도 지상에서 미움받은 요괴들을 술선하여 받아들였다.

그 일로 위험을 느낀 지상의 요괴들은, 새로운 지하도시를 인정하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지옥의 원령들을 봉하는 것이다. 그 대신 어떤 요괴도 지하도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오니들은 지상과의 교류를 끊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생활을 남몰래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기는 오니답게, 매일 소란피우며 술을 마시고,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강한 인간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취한 상태였지만 급하게 달려나간 것이지만.....

-처음으로

○4면 보스 원령도 두려워하는 소녀

코메이지 사토리

Komeiji Satori

종족 : 사토리

능력 : 마음을 읽는 정도의 능력

지령전의 주인.

지저 도시가 지옥에서 분리되었지만, 아직 지옥의 시설이 있었던 장소에는 많은 수의 성불 못한 영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관리할 자가 필요했다.

작열지옥터 위에는 지령전이 세워져, 그곳에 그녀가 살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요괴, 원령들에게서 두려움을 사, 언제부터인가

지령전을 방문하는 자는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마음을 읽는 능력이 말을 못하는 동물들에게 사랑받아, 지령전에는 불고양이, 지옥 까마귀로 시작해 애완동물들이 넘치는 저택이 되어있었다.

。

애완동물이 많아서 지금은 작열지옥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다양한 관리를 애완동물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애완동물 관리를 또 다른 애완동물에게.

정원 손질을 애완동물에게.

여동생의 놀이 상대를 애완동물에게, 라는 식으로.

하지만, 지상에서 방문할 리 없는 인간이 나타나, 원령과 간혈천의 이변을 들었을 때에는 대단히 놀랐다.

원령의 관리는 오린[카엔보 린]에게 맡기고, 작열지옥의 화력조절은 우츠호에게 맡겨두었다.

그녀들은 사토리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나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터였다. 이번 따위 일으킬 리 없다고 믿고 있었다.

어쩌면, 눈 앞의 인간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뭔가 꾸미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라고 마음을 읽었는데, 또 한 번 놀랐다.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원령과 간혈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토리는 의아하게 여겨서, 인간들을 시험해보기로 하였다.

[-처음으로](#)

○5면 보스 지옥의 윤회(輪禍)

카엔보 린 (통칭 오린)

Kaenbyou Rin

종족 : 화차[지옥의 불수레]

능력 : 시체를 가지고 사라지는 정도의 능력

원래 이름은 카엔보 린(火焰猫 燐)

본인은 이름이 긴 것이 싫어서, 모두에게 오린(お燐)이라고 불리고 있다.

불 속에서 사는 고양이로, 사토리의 애완동물이다. 말을 잘 하며, 시체와 영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열지옥터의 원령 관리를 맡고 있다.

그녀의 오랜 친구로 레이우지 우츠호가 있다. 그녀는 사토리에게 키워지기 시작할 때, 즉 지저가 지옥이 아니게 되었던 이래로 친구이다.

어느 날, 그녀는 작열지옥터에서 이변을 느꼈다.
평소보다 화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화력의 관리는 우츠호의 관할이다. 오린은 곧바로 우츠호에게 찾아갔다가 놀랐다.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손에 넣은 것이다.

그 이래로 우츠호는 거만해지기 시작해, 힘을 과시하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지상을 작열지옥으로 하여 지배하겠다고까지 말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리 없다. 사토리님이 허락할 리도 없다.
그 계획을 지저의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우츠호는 오니들이 처리해버릴 지도 모르는데.
오린은 친구의 변모에 망연자실하여, 금단의 기술을 사용한다.

그것은 원령을 지상으로 보내는 것. 그것에 의해 지상의 요괴들에게 이변을 알릴 수 있다면,
무언가 변할 것이라고.
그녀는 지상의 요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지상의 인간이었다.

그 인간은 생각 외로 강했고, 요괴퇴치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인간이었다.
그 인간의 실력이 사실이라면, 거만해진 우츠호를 혼내줄 수도 있을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다.

처음부터 사토리님께 상담했으면 좋았겠지만, 오린은 어째서인지 우츠호의 이변을 감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우츠호의 이변이 알려지면, 사토리님은 용서없이 우츠호를 없애버리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 비밀이 들키는 것을 무서워하듯, 오린도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오린은 그녀를 경외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6면 보스 뜨겁게 고뇌하는 신의 불

레이우지 우츠호 (통칭 오쿠)

Reiuzi Utsuho

종족 : 지옥 까마귀 with 야타가라스

능력 : 핵융합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대단히 이채로운 모습의 까마귀.

왼다리에 『분해의 다리』

오른다리에 『융합의 다리』

그리고 오른손에 그것들을 제어하는 『제 3의 다리』

그녀는 그 세 개의 다리로 궁극의 에너지를 조종하려고 한다. 。

영원의 잠에 빠진 화염지옥터 위에 지령전은 있었다.

지저세계가 지옥이 아니게 된 지금, 이곳에 죄인이 떨어지는 일은 없고, 지금은 원래 살고 있던 지옥 까마귀, 시체를 운반하는 화차, 그 외에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요괴들과, 원한만으로 움직이는 원령밖에 살지 않았다.

사토리는, 자신의 것이 된 그 장소에 애완동물들을 살게 하였다.

우츠호도 린도 마찬가지로, 사토리의 애완동물이다.

린은 원령을, 우츠호는 화염지옥터가 폭주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은, 조금이라도 불이 강해지면 안뜰의 창문을 열고, 화력이 줄어들면 린이 운반해 온 시체를 던져 넣어, 화력을 조정하는 것.

매일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평화로웠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 일상이 무너져버린다.

누군가가 지상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화염지옥터까지 단숨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화염지옥터에는 궁극적으로 인류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최후의 에너지를 낳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 속에 사는 까마귀인 당신.

당신은 그 궁극의 힘을 몸에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저 뿐만 아니라, 지상에도 희망을 갖게 하지요』

그녀는 빛에 싸여, 누군가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눈치챘을 때에는 그녀의 모습이 크게 변화해 있었다.

우츠호는 손에 넣은 힘을 사용하는 것이 즐거워서, 정신차려보니 작열지옥터는 뜨거움을 되 찾아버린 상태였다.

그 열은 지저의 물을 끓게 하여, 수증기의 압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간혈천이 되어 지상에 분출한 것이었다.

지상에서 방문한 자.

그것은 누구였던 것일까, 그리고 목적은.

우츠호의 작은 머리는, 그 의문을 금방 내놓아버렸다.

——야타가라스(八咫鳥)

그녀의 몸에 들어간 힘은 야타가라스라고 불리는 신.

세 다리의 까마귀로, 태양에 산다고 전해진다.

야타가라스가 가진 궁극의 힘은, 원자창조의 힘, 핵융합이다.

핵에너지는, 미래에 남겨진 궁극의 환상이었다.

[-처음으로](#)

○엑스트라 보스 달린 사랑의 눈동자

코메이지 코이시

Komeiji Koishi

종족 : 사토리

능력 : 무의식을 조종하는 정도의 능력

코메이지 사토리의 여동생.

그녀도 사토리처럼, 마음을 읽는 요괴였다.

그러나 마음을 읽는 것이 미움받는 것을 알고, 코이시는 마음을 읽는 제 3의 눈을 닫아버렸

다.

그로 인해 마음을 읽는 능력은 잃어버렸지만, 대신 무의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저의 주민에게서 미움받는 일은 없어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받는 일도 동물들에게 사랑받는 일도 없어졌다.

마음을 읽는 능력은, 스스로의 마음의 강함이기도 하다.

그것을 미움받으니까라고 말하며 달아버리는 것은, 단지 도피에 불과하며,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달아버리는 것과 같다.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완전히 섣다운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이곳저곳을 휘청거리며 방랑할 뿐인 요괴가 되어버렸다. 그녀로서는 그게 재미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주변에서 보면 조금 불쌍하게도 보인다.

언니인 사토리도 닫힌 코이시의 마음만은 읽지 못하고,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

애완동물 고양이처럼 놀러 나갔다 돌아와서는, 또 놀러 나가버린다.

사토리는 그런 코이시를 불쌍하게 여겨, 최근 애완동물에게 코이시와 놀라고 명령하였고, 몇 마리의 전속 애완동물을 붙여주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금씩 목적이 생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조금씩이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코이시도 변한 것 같았다.

이번에는, 지상에서 인간이 내려와 언니랑 오쿠[레이우지 우츠호]들과 말썽이 있었다고 들어서, 그 중에도 오쿠의 경이적인 능력 업이 신경쓰여, 지상에 나가보기로 하였다.

무의식으로 행동하는 그녀는, 누구에게도 눈치채이지 못한다.

지상에 올라가면, 자고 있는 무녀의 거드랑이를 빠져나가건, 친구가 경비하는 산을 통과하건, 아무도 그녀를 눈치채지 못하겠지.

그것은 형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조금 외롭게 보인다. .

그러나, 외롭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목적한 산 위의 신사에서 우연히 만난 인간. 그 미지의 인간과의 만남이 그녀의 심경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재미있는 생물이 있다니, 라고 생각하여, 조금 더 눈 앞의 생물을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 때 처음, 제 3의 눈을 담은 것을 후회하였다.

일단 먼저 지저의 지령전에 초대하자.

언니랑 오쿠, 오린과 어떤 싸움을 한 걸까.

지금까지, 어떤 요괴와 싸운 것일까.

질리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코이시의 제 3의 눈꺼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폐를 끼친 의문의 신

야사카 카나코와 모리야 스와코.

새롭게 요괴의 산 위에 신사째 이사해 온 신이다.

이번 회 사건의 발단은 그녀들이다.

——캠퍼의 에너지 산업혁명

그렇게 이름붙인 계획은 무사히 제 1단계를 끝내, 실용화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 계획이란, 사용하지 않는 작열지옥을 초고온의 화로로 재사용하여, 바깥의 세계에서 아직 실용화하려면 백년은 걸린다고 말하는 핵융합 에너지를 얻는 것.

제 1단계로, 우수한 지옥 까마귀의 선정.

태양의 화신, 야타가라스의 부여.

작열지옥의 재점화.

그리고 까마귀 사육이다.

간헐천은 그 계획의 성공 증거였다.

핵융합은 핵분열과는 달리 반응이 폭발하기 어렵다. 또한, 고레벨의 산업폐기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이다.

카나코는 신사의 영업 일환으로 행동한 것이다.

특히 위험한 것은 느껴지지 않았기에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도 지상의 요괴들은 계획을 망치려고는 하지 않았다.

단지, 지저에서 돌아온 레이무들은
『그런 건 모두에게 말하고나서 해』
라고 화난 듯하다.

[-처음으로](#)